

원양산업

제 1128 호

(2020년 12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근 30년 만에 신조 4 /
- 외국인 선원 교대 막힌 원양어업 비상 5 /
- 참치 업계, 영국 소매 유통업체와 선원인권 보호 논의 6 /

■ 협회 11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7 /

■ 참치 요리 만들기

(참치채소 튀김)

7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년 11월 보고 내용 18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세이셸 선망선 쿼터 한도 도달, 가다랑어 가격 상승 22 /
- WCPFC 회의 종료 29
- 오만 참치 캔 가공공장 입찰 시작 37

- 日 내년 2월 첫 전국 양식 참치 품평회 열려 03
- NGO, IATTC 특별 회의 개최 요구 08
- 키리바시 EEZ에서 한국 선망선이 가장 많은 참치 어획 23
-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은 참치 29
- 스페인 Bermeo 지역 선망 부문 18억 유로 창출 37
- 참치 냉동 눈다랑어는 한 단계 높은 시세 33
- 방콕 가다랑어 가격 약간 상승 48
- 만타 가다랑어 공급 악화로 높은 가격 유지 43
- IATTC 연례회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53
- EU, 키리바시 옐로우 카드 해제 66
- PNA 신임 사무국장으로 Sangaalofa Clark 임명 68
- 태평양 눈다랑어 보존에 “예방 조치들” 73
- 냉동 대형 눈다랑어 700 엔 회복 78
- 참치 컨테이너 운송에 더 나은 관리 필요 83
- 스티로폼 용기로 위생 강화, 浬羽根 대형 참치용 어선 87

■ 오징어어업 동향

- 日 오징어 10월 어획량 70% 증가 94
- 日 신선 살오징어 저인망 중심 25% 감소한 3,030톤 94
- 포클랜드, 영국에 EU와의 수산 협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97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美 동베링해 명태 2021년 쿼터 4% 감소 24
- 9천만 달러 러시아 첫 명태 슈퍼트롤 인도 34
- 알래스카 명태 산업계 A 시즌 대비 44
- Russian Fishery Company 명태 연육 생산 계획 46

■ 꽁치어업 동향

- 日 꽁치 어획 최저 확실, 최종 3만톤 농후 64
- 꽁치 2년만에 3천톤 상회 47

■ 일본 수산 동향

- 일본 2021년 6월 “HACCP” 완전 의무화 4
- 생 미끼용 고등어 90 엔대 고공행진 84
- 日 10월 수산물 수출, 수량은 증가 금액은 감소 94
- 상호 입어 쿼터 합의, 전년과 동일한 수량인 9만톤 94
- 생선 급속 냉동에 위력, 코마 재팬 ‘미스트랄 KCF05’ 105
- 일본 북방 4개섬 조업 조건 올해 수준 107
- 日 10월 수산물 수입, 칠레 은연어 신물 지연 40% 감소 115
- 쫄네자와상사 ‘신형 생선회 슬라이서’ 125
- 日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반입 감소 전망 125

■ 각국 수산 동향

- 중국의 검역 강화 조치, 러시아 업계 대안 찾아야 35
- 대서양 청어 MSC 정지 35
- 중국 코로나로 냉동 제품 수입 일부 규제 45
- 러시아 대통령, 항만국조치협정 법령 서명 45
- 아르헨티나, 외국 어선들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도 55
- 유럽 전갱이 수요 증가에도 공급량 불투명 55
- 중국 양식 2029년에 국내 수산물 생산 80% 차 65
- 소비자 의도와 구매 행동에 큰 격차 75
- 세계 공헌도 평가 8위에 미쯔비시 상사 85

■ 쉬어가는 난 (詩)

- 겨울바다 <황동규> 97

■ 국내 수산 뉴스

- 원양어선 중대위반 시 최대 수산물 가액 8배까지 과징금 부과 100
- 한·미, 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 나서 107
-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시행 116
-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완공 127
-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127
-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 137
- 국립해양박물관 신임 관장에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임명 147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근 30년 만에 신조

801 승진호, 아그네스 110호 2척

2019년도에 원양어선 안전펀드가 조성되어 운영된 이후 올해 그 첫 결과물로 승진수산 '801 승진호', 아그네스수산 '아그네스 110호'(가나다 순) 등 2척의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최근 건조되어 포클랜드 조업을 앞두고 있다.

현재 조업 중인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대부분이 1970~90대에 계획조선 사업으로 건조되었다. 1991년에 건조된 '아그네스 101호'가 국내에서 건조된 마지막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 이번 신조는 근 3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이번에 건조된 2척의 신조선은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사업을 활용해 동 선박 건조 금액의 50%(60억 원)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총 1,700억 원(정부 출자 8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한 오징어채낚기 신조는 현재 건조된 2척 외에 3척이 추가로 대체건조되고 있으며, 내년 11월에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도 2척이 추가로 건조될 계획이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이 실제 조성되고 신조가 이루어지기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한, 우리협회 오징어어업위원회의 위원장사를 비롯한 위원사들의 전향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었다. 이번에 신조 건조한 승진수산과 아그네스수산은 불규칙한 어장 상황, 연안국 정책 변화, 국제 규제 움직임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 끝에 업계에서 처음으로 신조를 결정했으며 주 입어국인 포클랜드의 정책 변화로 신조 어선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해 건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건조된 2척 신조선은 500톤 규모로, 거주구역 내부는 쉽게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사용했고 구명정 1대와 구명뗏목 2대를 추가 비치하는 등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선원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 기준에 맞추어 기존 선박보다 확대했다.

한편, '801 승진호'는 지난 11월 17일에 명명식을 가졌으며 '아그네스 110호'는 7월 17일에 진수식, 11월 20일에 출항식을 가졌다.



<801 승진호>



<아그네스 110호>

외국인 선원 교대 막힌 원양어업 비상 문제 점점 심각해져... 불안감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원양어업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선원 교대, 외국인 선원 수급, 선박 검사, 양상 전제 등 각종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다른 문제들은 해양수산부, 우리 협회, 전국원양산 업노동조합, 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현안별로 대응하며 타개해 나가고 있지만 선원 교대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3월 우리 협회는 연안국들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원양어업계가 선원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반선으로 교대하는 방안을 강구, 한국선급에 한시적으로 최대 승선인원을 5인 증원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후 4월에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 승선 인원 증원을 요청한 선박(본선 및 운반선)별로 구명뗏목(LIFE RAFT) 등 안전설비를 검토한 후 가능한 인원의 증원을 승인하도록 했다. 선사들은 이후 이러한 긴급 조치를 활용해 교대가 시급한 선원들의 경우 운반선 또는 다른 조업선을 통해 편승 교대해 왔다. 하지만 그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업종별로 선사별로 각각의 사정이 달라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의 편승 교대마저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5월 28일 이후 외국인 선원이 다른 선박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선원이 아니라 '무비자 승객'으로 간주해 입국을 불허했다.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대부분 9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단기체류자격비자(C3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으며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비자가 만료되어 무비자 상태이다.

이러한 법무부 조치의 영향으로 다수의 외국인 선원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 편승 입국

할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휴식 후 다른 원양어선에 교대 승선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현재 승선 중인 어선에 계속 머물러 있다.

우리 협회가 선원 교대 불가로 계속 승선 중인, 또는 예정인 외국인 선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월 18일 기준으로 총 9개사 36척, 260명이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으로 파악되었다. 260명 중 현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입국하지 못해 여전히 원양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은 39개사 177명(계약 연장 59명, 미 연장 118명)이며 2개월 이내에 계약 종료 예정인 선원은 83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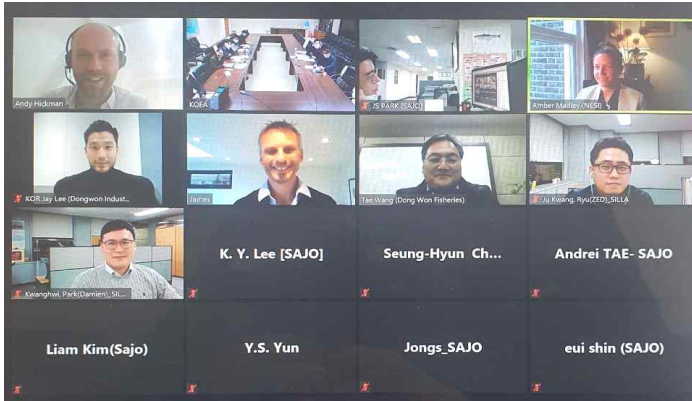
아울러, 조업을 마치고 본선으로 입항하여 다음 선박 승선을 기다리는 외국인 선원들도 코로나19에 따른 항만 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로 인해 상륙이 엄격히 제한되어 땅을 밟지 못하고 기존 어선에 승선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 협회와 업계는 해수부, 국회 등을 통해 외국인 선원 입국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가 건의한 사항은 △선원의 편승 입국 허용, △조업 중 어쩔 수 없이 제3국에 하선한 외국인 선원의 경우 제3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 입국비자 발급 허용, △본선이 조업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입항했을 때 다음 조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이다.

외국인 선원 입국 관련 문제는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점점 끓어가고 있다. 외국인 선원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나치게 장기간 바다에 고립되어 있다 보면 원양어선 선내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참치 업계, 영국 소매 유통업체와 선원인권 보호 논의



원양 참치 조업 선사들은 지난 12월 4일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인권보호 관련 국내 논의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영국 소매 유통 업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원양업체가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7월에 출범한 ‘NGO 등 대응 관련 TF’팀의 팀장인 사조산업 김치곤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동원수산 등 참치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고, 협회에서는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영국 소매유통 업체는 NESI(New England Seafood International)사의 로빈슨 제임스 다랑어부문 이사와 엠버 메들리 지속가능성 책임 및 윤리관리자, TESCO사의 앤디 히맨 인권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영국으로 수출되는 수산 제품의 유통 분야에서도 선원(노동자)의 인권보호가 중요시됨에 따라 인권보호 관련 국내 동향을 영국 소매 유통 업체와 공유하기 위해 원양 참치 조업 선사 주도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참치 선사들은 NGO가 선원 인권문제를 제기한 이후 ‘NGO 등 대응 관련 TF’팀이 장기간 논의해온 사항을 NESI사

와 TESCO사와 공유하며 동 사항들을 정부와 협의하여 조만간 최종적으로 결정해 내년에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외국인 선원 여권, 개인이 보관, △외국인선원 고용 시 고용계약서 상호간에 제공, △월별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외국인선원 공급 관련 문제를 야기하는 송출 업체 미이용, △선원인권 보호 교육을 위한 비디오제작 △선원인권 체크리스트 수립하여 선박 내 간부 선원이 정기적으로 확인, △어선원노동

협약 발효대비 휴식시간(주 77시간) 보장 등이다.

영국 NESI사와 TESCO사는 수산제품의 유통에 있어서도 핵심이슈가 육상 노동자 및 선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계지원, 성평등, 강제노동 해소, 노동자의 불만사항 처리 등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이 설명한 인권 보호 관련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원양업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선 노력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였고, 보다 나은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 대책들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NESI사와 TESCO사는 세계참치동맹(Global Tuna Alliance, GTA)의 회원사이다. GTA는 참치의 지속가능성과 참치 어업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소매 유통 업체들과 공급업체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그룹이다. GTA는 최근 국제기구에서 자원 보호와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원사인 Tesco사, Princes사, Coop사는 IOTC가 적절한 참치 자원 회복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도양 황다랑어를 보이콧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협회 11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협회 회장단 간담회
 - 일자/장소 : '20.11.17, 11: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협회장 및 협회 회장단사 9명
 - 내용 : 원양산업 현안사항 협의 등
- 부산국제수산 EXPO 환담회 참석
 - 일자/장소 : '20.11.5 10:00/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층 216호
 - 참석자 : 협회장
 - 내용 : 내빈 환담회, 전시회 브리핑, 전시장 순람
 - * (개최) 부산광역시
- 제15회 부산수산정책포럼 참석
 - 일자/장소 : '20.11.5 14:00/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층 211~213호
 - 참석자 : 협회장
 - 내용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등
 - * (개최) 부산수산정책포럼
-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 계획 수립관련 TF 회의 참석
 - 일자/장소 : '20.11.12 10:30 / 세종시 TOZ 8층
 - 참석자 : 해외협력본부장
 - 내용 : 분야별 제2차 수산업·어촌 기본계획 수립 협의
 - * (개최) 해양수산개발원
- 원양어업경영자금 관련 업무추진
 - 가. 2021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건의(해수부 원양산업과)
 -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상 업체 대출금지 조항 삭제 등
 - 나. '20.11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11.6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2척 5.87억원 원안의결
 - 다. 2021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초안 작성
- 2021년도 수산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 의뢰(전화원사)
 - 추천대상자 : 원양산업 발전 등에 공이 큰 유공자
 - 기념식행사 : '21.4.1/ 포항시
- 협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매년 의무)
 - 일시/장소 : '20.11.19, 15:00/ 협회 소회의실
 - 예방교육 : 올인교육센터 강사
- 2020년도 연말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발전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해수부 원양산업과)
 - 추진목적 : 연말에 즈음하여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표창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공적을 치하
 - 추천자(3인) : 동원산업, 동원수산, 신라교역 기관장 및 통신장
-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 심의회 서면 심의의결 제출
 - 2019년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면심의 가결 제출

- 2020년 제2차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에 대해 서면결의서 찬성 제출
- 협회 운영 관련 업무추진
- 가. '20. 10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 나. '20.10월분 업종별 회비 부과
- '20년 10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359,806	81
- 참 치	238,870	74
· 횡감용	30,431	88
· 통조림용	208,440	73
- 명 태	20,991	106
- 오징어	33,374	206
- 풍 치	3,636	53
- 기 타	62,935	79

회원지원부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등 관련 업무추진
- 가. 공익법센터 어필 방문
 - 일시/장소 : '20.11.2, 15:00/ 어필
 - 참석자 : 김종철변호사
/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등 논의사항 설명
- 나. 국회 맹성규의원실 방문
 - 일시/장소 : '20.11.3, 15:00/ 맹성규의원실
 - 참석자 : 이택준비서관
/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등 논의사항 설명
- 다. 외국인선원 근로실태 점검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1.10, 15:00/ 외국인선원복지회관
 - 참석자 : 해수부, 부산청, 해경, 원양노조
/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외국인선원 근로분야 및 인권 실태조사 등
- 라. 원양선원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6차 업무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11.13, 10:30/ 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원양산업과, 원양업계, 노동조합 등/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1부 이사, 회원지원부장 외 1명
 - 내용 : 원양선원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 마. 원양선원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7차 업무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20.11.19, 11:00/ 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원양산업과, 선원노련, 원양업계/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1부 이사,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 어선원 근로조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1.5, 14: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원노련, 원양노조, 해운조합 등/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어선원 근로조건 등 개선방안 마련 협의
-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방안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0.11.4, 10:00/ 부경대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 부산시 중구청 및 서구청 대형선망수협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피해보전직불제도 개선방안 협의
- 제35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참석
 - 일시/장소 : '20.11.10, 13: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참석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및 참여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등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제2차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11.24, 15:00 / 수협중앙회
 - 참석자 : 재단 이사 및 감사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1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검토
- 케이프타운협약 도입을 위한 중간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11.26,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외,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원양업계 / 회원지원부장 외 1인
 - 내용 : 과업 수행 내용, 연구 추진방향 등 착수보고 의견수렴 등
- 원양산업발전법 관련업무 추진
 - 가. 원양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시행 알림 (전화원사/11.1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11.27)에 따른 주요내용
 - 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알림(전화원사/11.25)
 - 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 알림(전화원사/11.27)
-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업무추진
 - 가. 교육과정 개설 안내(전화원사/11.12)
 - 교육일정(11월말-12월초 2회) 및 접수 안내
 -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일시/장소 : '20.11.26-27(1차), 12.3-4(2차) / 해양수산연수원(영상)
 - 참석자 : 원양업계 각 사별 안전관리책임자
 - 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한국해양안전진흥협회 서면 이사회 참석
 - 2020년 후기이사회 안건 및 의결서 등
- 원양어선 검사관련 수요회신(KOMSA/11.5)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어선검사 수요 : 7개사 14척
- 2020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현황 조사자료 제출(해수부/11.11)
 - '20년도 배정(조정)인원 51명중 36명 편입
- 2020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신규 대상선박 재 공모 선정결과 알림(11.20)
 - 신규지정 : 코삭교역 PRATIDINA 28
 - 예비지정 : 동원산업 HANARA
- 2021년도 원양어선 국내항 입항 일정 회신 (부산청/11.13)
 - 16개사 60척
- 선원 임금채권 및 송환보장기금 관련 업무추진
 - 승계발급(아그네스수산/11.17)
 - 아그네스 105(430톤) → 아그네스 110(499톤)
 - 승계발급(승진수산/11.23)
 - 선해316(443.57톤) → 801승진(499톤)
 - 신규발급(해나/11.24)
 - 술에스테 707(276톤)
- VMS 장비(INMARSAT D) 교체수요 조사 (전화원사/11.9)
 - FMC 요청에 의거 장비 교체에 대한 의견조회
- 2020년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 시행 알림 (전화원사/11.30)
 - 인명피해 사고 중점관리 등
- 코로나 관련 업무추진
 - 가. 코로나19 선내 확산방지를 위한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1.16, 14:00/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 원양업계 / 회원지원부 차장 외 1명
 - 내용 : 코로나 관련 현황 공유, 원양업계 자구 대처방안 등 협의
 - 나. PCR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일부 취소 알림 (전화원사/11.5)

- 다. 방역강화 대상국가 조정에 따른 전자검역 체크리스트 변경알림(전화원사/11.5)
- 라.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 안내(전화원사/11.13)
- 마. 코로나바이러스19 검역대응 지침 개정 안내(전화원사/11.13)
- 바.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선원 중도퇴소 관련사항 알림(전화원사/11.13)
- 사. 항만입국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입소신청 절차 변경 알림(전화원사/11.17)
- 아. 선원교체 불가로 계속 승선중(예정)인 외국인 선원 현황조사(전화원사/11.13)
- 자. 국내 경유하지 않는 외국인선원 COVID19 감염 차단을 위한 각별한 관리 협조요청(전화원사/11.18)
- 차. 코로나 19 선내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전화원사/11.19)
- 카.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번역본 송부(전화원사/11.19)
- 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등 철저히 이행 요청(전화원사/11.23)
- 파.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줄임쉼터 이용 협조 요청(전화원사/11.23)
- 하.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퇴소자 무단이탈 방지 협조 요청(전화원사/11.30)
- 해적관련 업무추진
 - 가. 선사 자체 해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해적 피해예방 대응 지침서 배부(전화원사/11.6)
 - 나. 싱가포르 해협 통항 시 해적경계 활동 강화 요청(전화원사/11.11)
 - 다. 선사 자체 해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해적 피해예방 대응지침서 배포(전화원사/11.18)
 - 라. 서아프리카 해적사건 발생 전파 및 해적피해예방 지침 이행 철저히 요청(전화원사/11.17)

- 마. 2020년 12월 청해부대 선박 호송계획 알림(전화원사/11.30)
- 바. 서아프리카 해적 피랍사건 발생 전파 및 해적피해예방 지침 이행 철저히 요청(전화원사/11.30)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11월호(제1127호) 제작
 - 협회소식 3건(월양 오징어채낚기 선사-대방사업무협의회 등)
 - 국내소식 10건, 해외수산정보 51건
 - 명예해양수산업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123개소 316권)
- 월양산업 정보&뉴스 제공(78호 11.4, 79호 11.11, 80호 11.18, 81호 11.25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78호 정보 12건(3분기 방콕 가다랑어 하역량 낮은 수준/ 러시아 2021년 명태 쿼터 0.1% 상승한 199만 6천톤/ 일본 10월 살오징어 동해 중앙부에서 분포 증가 등)
 - 제79호 정보 10건(태국-멕시코, 미국으로 참치캔 수출 늘려/ 미국 베링해 명태 B시즌 어획 부진/ 북대서양 회유성 어종 TAC, ICES 조안에 따라 설정 등)
 - 제80호 정보 8건(만타 가다랑어 어가 높은 수준 유지/ Russian Fishery Company 명태 연육 생산 계획/ 船凍 동해 살오징어 조업 저조 등)
 - 제81호 정보 14건(일본 냉동 대형 눈다랑어 700 엔 회복/ 콩치 2년만에 3천톤 상회/ 소비자 의도와 구매 행동에 큰 격차)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24차 연례회의 참석
 - 기간/장소 : '20.11.2-6, 17:00 / 화상회의
 - 참석자 : EU, 몰디브, 일본, 세이셸 등 회원국
 - 내용 : 어종별 자원상태 및 관리권고 검토, 황다랑어 관리절차에 관한 보존관리 조치 제안서 논의 등
- 페루 PSMA 채택 및 자국법 개정 관련 유관 기관 회의 참석
 - 기간/장소 : '20.11.5, 14:00/ 해수부 수산정책실
 - 참석자 : 해수부, 외교부, 동원산업, 정일산업 / 협회 협력1부 이사
 - 내용 : 페루 PSMA 채택 및 자국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원양어선 근무인원 최소화 방안을 위한 업무 협의회 참석
 - 기간/장소 : '20.11.18, 14:00/ 해양수산부 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동원산업, 사조산업, 정일산업 / 협회 해외협력1부 대리 등 2명
 - 내용 : 업종별 자동화 현황, 원양어선 자동화 기계화 방안 논의
- 원양 다랑어어업 관련 업무 협의회 참석
 - 기간/장소 : '20.11.18, 10:00 / 화상회의
 - 참석자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부, 해외 수산협력센터, 연승어업출어사 / 협회 해외협력1부 차장 등 3명
 - 내용 : 남방참다랑어 폐기/방류량 처리 및 관리,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HGT 처리 어획물 보고 방법 등 논의
-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승진수산 신조선(801승진) 명명식 참석
 - 일시/장소 : '20.11.17, 14:00/ (주)강남조선
 - 참석자 : 승진수산, 강남조선 /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등 5명
 - 나. 아그네스수산 신조선(아그네스110) 축성식 및 출항식 참석
 - 일시/장소 : '20.11.20, 11:00 / (주)강남조선
 - 참석자 : 아그네스수산, 강남조선, 해수부 장관 / 협회장 등 2명
- 제17차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연례 회의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1.25, 13:3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업감시센터, 태평양 참치어업출어사/ 협회 협력1부
 - 내용 : 공해 조업일수 증대 방안, FAD 금어기, 눈다랑어 어획한도 등 주요 이슈 대응 방안 협의
 - * 제17차 WCPFC 연례회의 : '20.12.9-15, 08:00-12:00(KST) / 화상회의
- IUU어업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워크숍 결과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11.26, 10: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업감시센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협회 협력1부 차장
 - 내용 : 항만국 검색제도 및 과징금 관련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IUU어업 예방 및 관리방안 보고
 - * 연구수행기관 : (사)해양수산물과학기술연구조합 (PM 김동욱 박사)
- 국제수산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전배 가능 기한 안내 및 선박별 어획할당량 지속 관리 당부

- 국제수산기구 어획할당량 소진·전배현황 제출 (해수부)
- 2021어기 CCSBT 남방참다랑어 Tag 제작 주문 요청
- ICCAT 전재운반선 허가 목록 추가 요청(해수부)
- CCSBT 10월 어획실적 및 12월 양륙계획 제출 (과학원)
- 참치어업 지원사항
 - 2021어기 입어장 허가 신청 안내
 - PNG, 솔로몬, 투발루, FSM : 개별 회사 전자 입어신청
 - 나우루 : 입어신청 서류 협회 이메일로 제출
 - WCPFC 관할 수역 내 입항 전제 및 읍서버 승선 의무 한시적 면제조치 연장 알림“
 - ~21.2.15까지
 - 2021어기 한-솔로몬, 투발루, PNG 입어협상 결과 보고(해수부)
 - ICCAT 전재운반선 허가 목록 추가 요청(해수부)
 - '19년도 IOTC 수역 양륙량 자료 제출(과학원)
 - 참치선망 조업일수 전배
 - HGT 처리 어획물 환산계수 산정 업계 의견 제출(과학원)
 - WCPFC 과학위원회 자료 임시 적용에 이견 없음
 - 2021어기 PNA 등록비 재고 요청 서한 전달
 - 참치선망 조업일수 전배 및 추가구매
- 오징어어업 지원사항
 - 가. 안전폴더(Safety Folder) 시스템 활용 교육 개최
 - 일시/장소 : '20.11.5, 10:00 / 부산 토즈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 선사, 포클랜드 대방사 관계자 / 협력1부 차장 외 1명
 - 내용 : 안전폴더(Safety Folder)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 및 질의응답

- 나. 제12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1.12., 13:00/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포클랜드 대방사 관계자, 오징어채낚기 선사 / 협력1부
 - 내용 : 포클랜드 입어 정책 동향 및 유의사항 안내, 선주선박 성명서 제출 안내 등
- 다. 제12차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위원회 후속조치
 - 변경 입어 정책에 따른 2021어기 포클랜드 입어신청서 및 선주 선박 성명서, 각종 증명서 제출(대방사)
 - 원양어선 COVID-19 예방 매뉴얼 영문 번역본 전달(대방사)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 가.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20년도 러수역 조업 쿼터 전배 신청 (11.4/해수부, 러수산청)
 - '20년도 러시아수역 조업 쿼터 전배 전문 발급 알림(11.6/해수부, 사조오양, 한성기업)
 - * '96오양호' 명태쿼터 300톤, '준성호'로 전배 완료
 - '20년도 러시아 수역 조업 쿼터 전배에 따른 입어로 정산 납부 및 계좌 정보 제출 알림 (11.6/사조오양, 한성기업)
 - 감독관 승선 계약 추가계약서 서명본 제출 (11.17/동북극국경수비대)
 - '20년도 러수역 조업 쿼터 전배에 따른 입어로 송금(12.1/사조오양, 한성기업)
 - 한성기업 쿼터전배에 따른 입어로 사조오양으로 송금 요청
 - 나. 꽁치봉수망 업무추진
 - 꽁치봉수망 통역관 통역비 지급 (11.13 / 꽁치봉수망통역관)

- 제주도 갈치 연승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11.9, 14:00 /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갈치연승업계, 풍치붕수망업계 / 해외협력2부장
 - 내용 : 풍치 조정관세 협의
- 제5차 NPFC 과학위원회 참석
 - 기간 : '20.11.16~27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업계 / 해외협력 2부
 - 회의내용
 - VME 지역 저층어업 분류군 가이드라인 채택
 - 북방돛돔 및 빗금눈돔 자원평가 회기 간 회의 개최 합의
 - 풍치 자원감소 확인 및 내년 2월 연례위 전까지 과학적 권고사항 마련키로 합의
 - * 제5차 NPFC 과학위원회 참석자 명단 제출 (11.10/수과원), 풍치붕수망어업위원장, 해외협력2부 과장 외 1명
- 정일산업 크릴어업 MSC 심사 회의 참석 (11.11 / 컨트롤유니온)
 - 일시/장소 : '20.11.11, 16:30 / 화상회의
 - 참석자 : 컨트롤유니온 / 해외협력2부
 - 회의내용
 - 원협 CCAMLR 연례위에서 담당 역할 설명
 - 정일산업 및 원협 협력관계 설명
- '21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수요조사 알림
 - '21년도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추천물량 배정 관련 업체별 희망물량 조사(11.30 / 한러위원사, 뉴지위원사, 참치선망출어사)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투자 의견 알림 (12.1 / 해수부)
 - 러시아 KOMKON社 투자 제안서 관련 업계 의견 알림

- '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준공 증빙 서류 제출(12.1 / 부산시)
 - 지원선박 : 8개사 9척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97개사 652건('20.11.1-11.30)
- 2021년도 부산권 냉동창고 항운노조 임금인상 및 부대 근로조건 개선협의회
 - 일시/장소 : (2차) '20.11.2, 11:00, (3차) '20.11.13, 11:00, (4차) '20.11.23, 13:30, (5차) '20.11.30, 11:00 /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노측) 항운노조 (사측) 원양협회 부산지부장 등
 - 내용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지속 협의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11.5, 11:00/ 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 (부산지부장)
 - 내용 : (산재) '20.10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복지) '20.10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3개사 3척(참치선망 1, 참치연승 2)
 - 출항 : 5개사 5척(참치선망 1, 참치연승 4)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다자·양자회의 참석 및 후속 업무

가. 제24차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연례회의

- 일시/장소: '20.11.2~6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원태훈 전문관
- 내용: 과학위, 재정위, 이행위 등 하부위원회 보고서 발표, 사무국장 선임 등

나. 제4차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이행위원회

- 일시/장소: '20.11.9~11/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김지은 전문관
- 내용: 이행보고서 채택, CMM 개정 논의, CNCP 지위 등

다.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수석대표회의

- 일시/장소: '20.11.12/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협력센터 김지은 전문관
- 내용: 제7차 SIOFA 당사국 회의 의제, 논의 방식, 비공개 논의 의제 승인 등

라. 제126차 OECD 수산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20.11.16~17. 21:00 /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어업정책과 조일환 과장, 국제협력총괄과 이근호 사무관, 조안나 주무관,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 내용: 2020 수산정책동향 보고서 승인, 코로나가 다자수산물관에 미치는 영향, COFI 예산, 작업계획 등

마. SPRFMO 수석대표회의

- 일시/장소: '20.11.24/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협력센터 김지은 전문관
- 내용: 사무총장 선임 절차 논의

바. WCPFC 한-미 양자회의

- 일시/장소: '20.11.19/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원산과 양영진 과장, 이성재 사무관, 국총과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열대다랑어조치(CMM2018-01) 개정 논의 및 721오룡호 IUU 조치 논의

사. ICCAT 연례회의(서면회의로 대체)

- 회원국 제안서 및 NGO 의견서 검토
- (주요의제) '21년 열대성 참치 관리조치 작업계획, 북방·남방날개다랑어, 청상아리 보존관리조치 등

아. 한-미 정례협의회의

- 일시/장소: '20.11.24/ 영상회의(해수부 회의실)
- 참석자: 해수부 해양정책실 오운열 실장,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국총과, 원산과, KMI, 협력센터 김지은 전문관
- 내용: 해양포유류법, IUU 대응 등 양국 수산물관리 및 관련법 논의

○ 국립수산물과학원 다랑어연승 업무협의회

- 일시/장소: '20.11.18. 10:00/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수과원, FMC, 원협,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원수산, 협력센터
- 내용: CCSBT 방류·폐기 처리 및 관리, 다랑어 HGT 처리 어획물 보고 방법

○ 회의 참석 준비

가. 제17차 WCPFC 연례회의

- * '20.12.7~15/ 영상회의

- FFA 주요 우선순위 및 미국 청새치 제안서 요약
- 회의 문서 및 하부위원회 보고서 검토

나. 제165차 FAO 이사회

- 회의 주요 문서 검토
- (주요의제) 2022-31 전략적 프레임워크 및 2022-25 중기계획, 민간분야 연계를 위한 FAO의 새로운 전략, FAO의 코로나19 대응, WFP 집행이사국 선출, 프로그램위원회·재정위원회 결과 보고, 농업위원회·산림위원회 및 지역총회 결과 보고 등

○ 보존관리조치 번역 및 발행

-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번역 및 검수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발행 완료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번역 및 발행 준비

○ 일본 관련 업무 추진

가.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면담 참석

- 일시/장소: '20.11.25, 11:00/ 해수부 중회의실
- 참석자: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외 3명,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외 3명, 센터 김선경 전문관
- 내용: 처리수 현황 설명 및 해수부 입장 전달

나. 해양방출안 관련 동향 조사(해양환경정책과)

- 경산성 국내여론 완화를 위한 대응

다. 해양영토, IHO 발간 S-23 관련 동향 조사 (해양영토과)

- 산케이 신문 "독도를 생각하다" 정기 기고 번역
-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조사, 해상보안청 무인기 도입 등
- 일본 언론에 드러난 IHO S-23 관련 일본정부 인식 정리

라. 월간 일본 동향 11월호 작성

- 도쿄 지속 가능한 수산식품 심포지엄 2020

- 전자모니터링, IUU 조업,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

마. 코로나19 한국 대응 해외 긍정적 보도 내용 조사 (해양레저관광과)

○ 중국 해양수산 주요이슈 분석 및 조사

가. 해양영토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동향 모니터링 (해양영토과)

- 중국 보하이 황해 심해양식시설 설치
- 중국 해역 및 무인도 자원 권리확인 등록사업
- 위성 및 황해 양식시설 상시 모니터링

나.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 중국 다량어 원양산업 현황 및 과제
- 중국의 원양산업 발전현황

다. 원양어업실태조사 관련 조사

- 중국 어업법 개정 전후 비교 및 번역
- 중국의 어선신개조보수 지원책

○ 기타

- 국제수산물간동향 작성
- 국제수산기구 현황 업데이트 (NPAFC)
- 국제협상전문가 사업예산 조정 요청서 작성
- 국제협력총괄과·원양산업과 요청자료 번역
- 페루 외국어선 통제에 관한 법령(원양산업과)
-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남미 4국 공동선언문 (원양산업과)
-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아시아협의체 워크숍 문서(국제협력총괄과)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가. OFIS 개선사업 적정사업 산정위원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1.27, 14:00/ 협력센터

- 참석자 :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이유호 팀장, 두드림정보통신 정희수 이사, (주)DNI 컨설팅 박민기 대표, 협력센터 이희진 팀장,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원양산업종합정보 시스템(OFIS)) 적정 사업기간 산정

나. 원양산업뉴스 22건 업로드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가.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세미나

- 일시/장소 : '20.11.03 11:30/ 협력센터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조경래 사무관,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소개, 세네갈 일반 현황, 수산업현황, 애로사항 등

나.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게재 11건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가나, 세네갈 어시장 설치 전문가 파견 추진

- 어시장 설치 전문가 계약이행 요청 공문 전달 (11.13, (주)보성엔지니어링))
- 12.5 인부 파견 → 가나('18년 사업) → 세네갈 ('18년 사업) → 세네갈 어시장('19년 사업) 순 설치 계획

나. 마이크로네시아 차기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영상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11.18, 13:00/ 협력센터 회의실 (Zoom 영상회의)
- 참석자 : 마이크로네시아 Chuuk State Government Mark Mailo(Governor), Atson Nakayama (Assistant Chief of Staff),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김지은 전문가
- 내용 : 차기 어시장 설치 사업을 통한 SDGs(지속 가능발전 목표) 기여 방안 논의, 어시장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방안 협의

○ 원양산업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0.11.25, 14:00/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신충훈 주무관, 서범석 주무관,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 팀장, 윤유정 행정관, 이지현 전문관,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김창민 연구원 등
- 내용: 최종보고

○ 해외수산물투자활성화 워크숍 개최

- 코로나 재확산으로 오프라인 회의 취소, 기존 발표자 영상 촬영 및 배포로 계획 변경(11.25)
- 발표 영상 촬영(11.26, 협회 소회의실)
- (발표자) 네오앤비즈 이규태 박사, KOTRA 전임 콜롬보 무역 관장 김용덕 감사,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Rehka 참사관

○ 제18회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 참가

- 일시/장소 : 11.5-11.6/ 부산 백스코
- 참가목적 : 협력센터 사업홍보, 국내 해외 진출 업체 및 유망기술 보유업체, 국외 합작가능업체 파악
- 내용 : 협력센터 홍보 리플릿 배포 및 현장 투자 컨설팅/ 수산양식심포지엄 참석업체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참치채소 튀김



❖ 이렇게 준비하세요

- 4인분 / 202Kcal
- 재료 : 참치(통조림) 1통, 고구마, 달걀 1개씩, 당근 50g, 깻잎 2장, 양파 1/2개, 식물성 기름 3컵, 레몬 1/5조각, 식초, 간장 조금씩

※ 튀김옷

밀가루, 얼음물 2컵씩, 녹말가루 2큰술, 청주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① 참치 준비하기 : 체에 받쳐 기름을 빼고 큼직큼직하게 찢어 놓는다.

② 채소 손질하기 : 고구마와 당근은 깨끗이 씻어 껍질째로 사방 1cm정도 되게 깎둑썰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같은 크기로 썰다. 깻잎은 흐르는 물에 흔들어 씻어 1cm폭으로 잘게 썰다.

③ 튀김옷 반죽하기 : 밀가루에 녹말을 섞고 청주를 넣은 달걀물을 부어 어느정도 엉기게 한 다음 얼음물로 농도를 맞추어 튀김옷을 만든다.

④ 튀기기 : 튀김이 170C정도 되면 반죽에 버무린 재료를 한 젓가락씩 집어 넣고 튀긴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11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다카르 자치항 화재

- 11월 24일에 다카르 자치항구 1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정보제공사 RFM에 따르면, 현재 세네갈 수도에서 부는 강풍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렵다 한다.
-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모든 물품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12대의 트럭, 탱크로리, 50개의 약품목이 동원되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모두 대피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20 lbs 상	2,155	
	7.5~20 lbs	1,350	
	4~7.5 lbs	1,250	
눈다랑어	20 lbs 상	1,300	
	7.5~2 lbs	1,300	
	4~7.5 lbs	1,250	
가다랑어	7.5 lbs 상	1,300	
	4~7.5 lbs	1,250	
	3~4 lbs	1,1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13 유로 / MT	'20.11.27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 동향

- 현 시기는 매년 반복되는 저조한 어획 시기(11월-2월)로 연승어업 소형 기지선 및 원양 연승선 중 일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 선박들이 평균 회당 1톤 미만의 어획을 올리고 있다.

나. 코로나 동향

- 현재 피지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사례는 없으나 금번 뉴질랜드에서 출발, 수바로 입항한 화물선 선원 2명의 감염 확인, 조치한 바 입항선 검역이 강화될 것이다.

다. 기타

- 주 피지 조신희 대사 임기를 마치고 지난 3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해수부로 복귀할 예정이다.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250	로인가공용(PAFCO)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42/ kl	'20.12.9



변경대 미얀마 명예해양수산물



변경대
명예해양수산물

가. 선진국 러브콜 계속

- 10.14, 15일 MYANOR-Fish는 수산부, 노르웨이 대사관,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노르웨이 해양연구소와 함께 하반기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회의에서 2021년 프로젝트 수행할 활동에 대한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농축산관개부의 U Kyaw Min Oo 장관과 힐데 솔 바켄 노르웨이 대사가 참석, 개최사를 하였다.
- MYANOR-Fish는 미얀마에서 해양 어류 자원을 재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양식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얀마 수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내년 활동에는 DoF 공무원의 추가 현장 교육과 노르웨이에서의 공식 전문가 교육이 포함될 것이다. MYANOR-Fish와 DoF는 해양 어선에 대한 어업 면허 신청 프로세스를 계속 디지털화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시작할 것이다. Myeik의 해양 양식 연구소 또한 관리 수준에서 DoF 전략 작업을 지원할 것이다. DoF는 차기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나. 코로나에도 미얀마 수산물 수출 증가

- 미얀마 2019 ~ 2020 어업 수출액은 8억 8400만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 미얀마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 ~ 2020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수산 부문의 수출은 8억 4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억 2,265만 달러 증가했다.

- 올해 회계 연도에는 수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수산연맹(MFF)은 2019-2020 년에 수산물 수출로 8억 달러 이상을 벌 것으로 예상했다.
- 미얀마 수출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한 40 개국 시장에 생선, 새우, 게와 같은 수산물을 공급한다. 미얀마의 어업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지난 3개월 동안 소폭 감소했지만, 대유행 이후 많은 양의 수출을 경험했다.
- MFF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어장을 개발하고 선진 어업기술을 채택하여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 업체가 HACCP(위험분석 및 중요 관리기준) 및 GAQp(Good Aquaculture Practices)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 국제 시장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 종묘제품은 GAQp를 준수하는 부화장에서만 공급되어야 한다. MFF는 GAQp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농림축산 관개부 산하의 어류 농가, 가공 업체 및 수산부와 협력하고 있다. 가공 업체는 수산부 산하 ISO 인증 실험실에서 식품 안전을 위해 수산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
- 미얀마에는 전국에 480,000 에이커의 어류 및 새우 양식장이 있으며 120개 이상의 냉장, 가공 시설이 있다.

다.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Blue Economy를 위한 ODA 와 그 수행 전략

- 아래는 올해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4차 World Ocean Forum에 참석한 미얀마 수산청장의 기조 발언 내용이다.



- 어업은 미얀마 사람들의 식량 안보와 빈곤 완화를 위해, 특히 소규모 어업과 양식은 농어촌 주민들이 영양과 생계, 소득 창출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어업과 양식은 1차 산업 생산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GDP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약 3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산업 분야에서 풀 타임, 파트 타임 및 비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 수확된 어류의 70%는 전국적으로 소비되며, 이는 매일 식단에서 어류와 어류 관련 제품을 쌓아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자재로 만듭니다.
- 수산부는 식량 안보를 위한 어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 어업인의 사회 경제적 개선,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미얀마 어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 DOF(Department Of Fisheries)는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Blue Economy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 파트너 국가 및 INGO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존협회(WCS)의 기술 지원으로 DOF는 미얀마의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창출을 지원하는 전략적 조언인 해양 공간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다.
- 또한 DOF는 IOPA-IUU와 일치하는 불법, 미신고 및 규제되지 않은 어업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NPOA-IUU)을 현실화했으며, 해상 어선의 조업 관리를 위해 VMS(Vessel Monitoring System)도 구현했다.
- 한-미얀마의 협력에 관해서는 DOF는 2018년 KOICA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받아 담수 양식 연구 및 확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 미얀마와 한국 양국 정부 간의 수산 부문 개발 협력 양해 각서가 ASEAN에서 체결되었습니다. (2019 한-아세안 정상 회의, 부산)
- 한국 ODA 보조금을 활용한 수산 부문 가치 부가형 인프라 개발 등 수산 부문 지속 가능 발전 협력에 관한 미얀마 타당성 조사 의향서(LoI)도 진행 중이다.
- 또한, FAO, 한-미얀마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블루커뮤니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과 다양한 생계를 위한 수산 공동 관리 역량 개발 사업 협약도 진행 중이다.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 DOF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업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인적 자원 능력, 지식 및 기술 격차를 구축해야 한다.
- 우리 부서에서 발행한 의향서에 따라 한국 정부의 ODA가 지원하는 미얀마 수산 인프라 개발 타당성 조사가 신속히 수행되고 지속 가능한 수산 개발 MOU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사업으로 성공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 또한, DoF는 제도개혁(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력), 어업발전 노력/ 압력 감소, 효과적인 시행, 양식 연구개발(국가와의 협력)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원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모든 수산 공동 관리 지침/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 보전 및 자원 향상 활동 추진, 서식지 및 환경 악화/ 한국 수산자원공단 및 기타 ODA 업무 협력 추진을 원한다.
- 남획, IUU 어업과 결합된 과잉 능력, 기후 변화 및 해양 산성화, 해안 파괴,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서식지 파괴 및 지속성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미얀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국 같은 파트너와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12월 코로나19 비상사태 관련하여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으나 내년 1월 3일까지 블루코드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모든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전원 개학.
 - 모든 공공장소 집회 및 교회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까지 모임 및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사회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권장.
 - 모든 사업체 및 대중교통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되며, 사회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권장.(단 예외로 스타키스트 사모아 참치공장 및 관련 업체는 제외 24시간 가동)
 - 유일하게 하와이에서 사모아로 들어오는 하와이 에어라인 항공은 2021년 1월 31일까지 2개월 중단 연장하며, 특별 항공기로 입국하는 자는 출국 3일전 코로나 테스트 음성 확인을 받아야하며, 입국시에는 14일간 지정한 장소에 격리 조치.(아메리칸 사모아행 특별 비행이 필요한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주지사 및 부지사가 옵션 고려 가능)
 - 모든 어선 및 운반선은 입항 할 수 있으나 사전 입항 허락을 받아야 하며(1개월 이상 타 항구 입항한 적이 없어야 하며 편승 선원도 없어야 함) 입항 시 조건에 따라 선원은 선박에서 14일간 격리조치.(모든 여객선은 입항 중단)
 - 총독 LOLO가 2021년 1월 19일을 "본국송환 항공편 Repatriation flight" 시행일로 임시 승인(provisional approval) 했다.

- 현재 하와이에서 아메리칸 사모아로 귀국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약 6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송환항공편"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질 것 같다. 한 항공기에 140명의 승객 정도로 유치할 계획이다.
- 아메리칸 사모아로 귀국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와이에 지정된 호텔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메리칸 사모아에 도착한 후에 지정된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또 다시 격리된다.
- 모든 절차에 조심하기 위하여 본국송환일 날씨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한다.

나. 주지사 선거 실시

- 아메리칸 사모아 새로운 주지사(4년) 및 미연방 하원 1명(2년), 주 하원(2년) 선거 11월3일에 실시, 주지사 후보로 4명이 출마했으나, 부지사 Lemanu가 60% 이상 득표로 주지사로 당선, 미연방 하원의원으로는 현 미연방 하원의원인 Aumua Amata가 재당선되었다.

다.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Sama Co	황다랑어	라운드	1,450	
	눈다랑어	라운드	1,250	
	가다랑어	라운드	1,25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1.69(gallon)	'20.11.30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연간 어획/하역량 등 통계

- 2019/2020 어획년도
(‘19.10.1~’20.9.30)
- 어종/TACC(총허용어획량) / 총어획량 순으로 정리
- HOKI(새꼬리민태)/ 115,010톤/ 88,337톤
- SQUID(오징어)/ 82,120톤/ 41,989톤
- LING(홍메기)/ 24,279톤/ 13,130톤
- SILVER WAREHOU(점돔)/ 11,120톤/ 6,978톤
- HAKE(민대구)/ 7,783톤/ 2,402톤

나. 어업 동향

- 뉴질랜드 현지 선박의 주어종인 HOKI의 총허용어획량(TACC)을 2020/21 어기에 자발적으로 감소하기로 업계의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에서는 총허용어획량을 감소시킬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일단은 업계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감소량은 20%인데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원상복구 시킬 것인지를 다음 어기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다.
- 다른 어종을 어획하다 보면 HOKI가 함께 어획되는 경우가 많은데, HOKI 쿼터가 남아있지 않으면 다른 어종도 어획할 수 없게 된다. 만일 HOKI 쿼터가 없는데 HOKI가 어획되면 정부가 임의로 높게 책정해 둔 DEEMED VALUE(추정가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 한국선박의 주요 어종인 오징어는 쿼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쿼터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지만 오징어 어기가 끝이 나면 HOKI 쿼터 부족으로 인해 연간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 코로나 동향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 선원들이 입국을 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특별면제를 허용하여 500명 가량의 외국인 선원들이 입국했다. 외국인 선원들 중 일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뉴질랜드 지역 감염도 2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는 않아 외국인 선원들의 추가 입국이 당장 반복되지는 않았다.
- 하지만 지역 감염이 발생한다면 해당 도시 또는 국가 전체가 봉쇄(LOCKDOWN)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의 입국허가가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돌고 있어 예의 주시 해야 한다. 한국선박의 경우 외국인 선원의 비자 승인 절차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

라.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HOKI	2L	2,050	Sea Jho Co.Ltd
	L	2,050	
	M	1,800	
	S	1,450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BARRA COUTA	2L	1,900	Sea Jho Co.Ltd
	L	1,900	
	M	1,900	
	S	1,600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LING	3L	3,200	Sea Jho Co.Ltd
	2L	3,200	
	L	2,700	
	M	2,200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591/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12.1
	LMFO \$533/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낮은 구현 과제, 불법 어업

- 가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으로 남획과 파괴적인 어구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속 불가능한 어업 방법인 집어등 사용과 화학약품·폭발물 등이 사용되고, 치어를 남획하며, 파괴적인 어구인 모노 필라멘트 그물을 어획에 사용하고, 또한 어선 수 증가에 따른 조업량 증가, 어구의 대형화, 냉동설비를 갖춰 장기적 조업 가능, 더하여 어업법 및 규정의 미약한 준수와 집행은 수산자원을 급격히 감소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 2019년 가나에서는 170여건의 IUU 불법어업 위반사항이 기록되었으며, 이 중 약 15건이 어업정산위원회에서 정산, 나머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수산법(Act 625)을 제정하고 2010년 수산법(Legislative Instrument 1968년)을 공포해 발효시켰다.
- 이후 2014년 수산법을 개정하여(Act 880) 국제보존 및 경영 의무를 이행하고, 수산부가 IUU 어업과 싸울 수 있는 규정을 국가의 국제적 의무 및 기타 실제적인 사안에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2002년(Act 625)가 그 뒤를 이었다.
- Act 880의 88A조에서 해당 어장에 적용되는 보존 및 관리 조치와 달리 어선이 자국 또는 관련 연안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한 면허, 허가 또는 허가 없이 어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어선은 IUU 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는 어선의 소유자, 운영자, 용선자 또는 선장이 선박 감시 시스템에 의해 전송될 데이터를 포함하여 어획 또는 포획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선이 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 등이다.
- 그러므로, 이런 법은 유용한 도구지만, 연이은 장애물은 어떻게 하면 수산법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 법의 약한 시행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과 승선하는 옵서버 간에 최대한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되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을 준수하고 시행하는 것은 또한 키누 어획물 하륙장에 적절한 수의 수산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로 하는 반면, 단속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
- 정치적 간섭에 대처하는 것은 단속 집행에 있어 또 다른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250	
	10kg 하	1,00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8kg 하	1,250	
	1.5kg 하	1,0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435/kl MGO	'20.11.30	육상급유
SK B&T	\$405/kl MGO	'20.11.30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원양어업 현황

- 인도네시아는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 업계나 학계에서도 원양어업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태이다.
- 17,5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군도국가, 해양면적이 604만km², 해안선 길이 108,000km (세계2위)로 해양대국인 인도네시아가 가까운 자국바다를 두고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몇몇 수산회사가 일본 등에서 300톤급 중고 참치 연승선을 도입해 주로 인도양(자국 EEZ와 공해)에서 조업했으나, 상대적으로 대형 강선인 도입선에 대한 운항기술 및 조업기술의 부족, 선박관리, 회사 경영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일부는 냉동 운반선으로 개조되었으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입 중고 어선의 조업은 2014년 Susi해양수산부 장관이 취한 외국건조 어선의 어업허가 모라토리엄으로 모두 조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 2018년 해양수산부 발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도양 공해 조업허가 어선은 129척이며, 총톤수 200톤 이상 조업선은 11척, 100~200톤 조업선은 847척이다.
- 인도네시아는 수산물수출의 주요시장인 미국, EU 등에서 인도네시아 내 IUU어업의 근절을 요구하므로 국내어선 IUU 어업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나. 인도네시아 수산통계

- 아래는 2017년 기준 수산물 생산량이다.
- 총생산량 : 23,186,442톤
- 어업 : 7,071,452톤
 - 바다어업 : 6,603,631톤
 - 내수면 어업 : 467,821톤
- 양식업 : 16,114,991톤
 - 바다양식: 9,884,669톤(해초류 9,746,045톤, 가두리 76,175톤, 기타 62,450톤)
 - 해안양식못 : 2,772,527톤
 - 민물양식못 : 2,752,002톤
 - Cage양식 : 243,728톤
 - 민물가두리: 353,748톤
 - 벼농사 병행양식 : 82,870톤
 - 기타민물양식: 25,446톤
- 어종별 생산량

구분	생산량(톤)
참치	293,233
가다랭이	467,548
소형고등어과	471,009
고등어과 이외 어류	4,172,331
새우	400,073
기타 바다생물	619,920
민물어류	467,821

○ 양식업

구분	생산량(톤)
해초류	10,456,043
새우	1,150,405
능성어	70,294
돔류	8,431
밀크피쉬	636,825
잉어과류	312,954
틸라피아	1,265,201
메기	1,095,969
베트남 메기	319,966
붕어과류	220,126
기타	578,776



- 수산물 수출입량 및 액수(2018년도 잠정치)
총 수출량 1,126,068톤, 총 수출액 4,860,904천 달러

구 분	총수출량(톤)	총수출액(천달러)
중국	365,411	675,981
미국	197,487	1,876,897
일본	108,586	676,582
말레이시아	59,995	114,883
태국	57,917	147,062
대만	37,980	118,224
싱가폴	31,756	93,436
한국	27,016	73,969
이태리	21,795	126,915
홍콩	15,591	121,062
사우디	13,392	58,239
영국	10,321	62,716

- 어종별 수출량 및 액수(톤, 천 US\$)

구 분	총 수출량(톤)	총수출액(천달러)
새우	197,434	1,742,119
랍스터	1,958	29,904
참치, 가다랭이, 기타 고등어과	168,434	713,919
진주	9	48,286
해조류	212,962	291,837
계류	27,792	472,962
기타	517,481	1,561,876

- 국가별 수입량 및 액수(톤, 천 US\$)
총 수입량 849,746톤, 총 수입액 735,175천 달러

구분	총 수입량(톤)	총수입액(천달러)
미국	370,753	220,983
중국	87,090	95,541
호주	78,392	53,099
한국	31,368	28,268(2017년)
태국	26,362	22,142
파키스탄	16,657	31,012
칠레	10,897	19,253
베트남	10,243	14,702
말레이시아	8,558	13,254
일본	8,182	22,251

다. 해양수산부 장관 부패방지위원회에 체포됨

- Edhy Prabowo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월 25일 자카르타공항 입국장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수사관에 의해 체포 구속되었다.
- Lobster 치어 수출허가 발급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알려졌다.
- Edhy 장관은 취임 후 전임 Susi 장관의 강력한 수산자원 보호 정책에서 급선회하여 기업 친화적인 어업자원 이용정책을 추진했다.
- 대표적인 것이, ①Lobster치어 포획 및 수출허용, ② 소형 저인망어선 조업 허용, ③ 외국인의 어업부문 투자 허용으로 전임 장관이 강력히 금지 하던 것들이다.
- 특히, Lobster 치어의 포획 및 수출 허용은 해양부 내외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게 일어나,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 일부에서는 이번 장관 구속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 후임 장관은 아직 공석이며, 해양 및 투자조정장관 Luhut Binsar Panjaitan씨가 대행하다가, 12월 2일 농업부장관 Syahrul Yasin Limpo씨로 대행장관으로 변경되었다.

라. 코로나 19 동향

- 11월 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538,883명, 사망 16,945명, 회복 : 450,518명
- 1일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여 6,000명에 육박했으며 1일 사망자수도 100명을 넘겼다.
- 한인 코로나19 누적환자 53명, 치료 중 14명, 회복 38명, 사망 1명, 11.29~30 이틀에 걸쳐 5명의 확진자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기 후퇴, 전년 대비 올해 2분기 -5.32%, 3분기 -3.49%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관

가. 2020년 PERU 중·북부 수역
2차 열치
(ANCHOVETA) 조업시
즌 시작

- (조업 수역) 페루-에콰도르 국경 수역에서 남위 16도선까지
- (총 허용 어획량) 2,780,000톤 으로 증량(8월 중순 최초 허용 어획량 2,413,000톤의 98% 어획된 바 있음)
- (조업 기한) 11월 12일 부터 총 허용 어획량에 도달할 때까지
- (조업 선박) 540척 예상
- (기타) 각 어선별 어획 할당량까지만 어획해야 되며, 페루 생산부에서 지정한 위성추적 시스템 SISESAT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조업해야 된다.

나. 코로나 동향

- 12.8일 기준, 코로나 확진 976,621명(전일대비 +1,505명) 사망 36,401(전일대비 +77명)
- 한국-페루 사증 면제협정이 한시적 중단, 페루 거주권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 한국인들은 주한 페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 그리고 페루 도착 72시간 전 기준하여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판정된 영문증서를 소지해야 페루 입국 수속 시 문제가 없다.

다. 페루 정세

- 지난 11.9일 페루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많은 국민의 예상을 벗어나며 130명 국회의원 가운데 필요 득표수 87표를 훌쩍 넘긴 105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권한대행(임시 대통령)으로 마누엘 메리노(Manuel Merino) 국회의장이 선서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서며 격한 시위 양상을 보이게 됐다. 시민들의 전국 규모 시위로 청년 2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 불안이 가중되자 마누엘 메리노 전 임시 대통령은 수락 선서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11월 15일 사의를 표했다.

- 악화된 여론에 당황한 국회는 메리노의 사임을 수락하고, 후임으로 16일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의원(Francisco Sagasti, 76세, 자색당)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이에 따라 프란시스코 사가스티는 2021년 7월 28일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수습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및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 속에서 국정을 맡게 된 사가스티 권한대행에게 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 갑작스러운 사회 혼란으로 많은 전문가가 회복세를 보이던 페루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될까 걱정했으나, 다행히 사가스티의 취임 이후 혼란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페루 경제도 비스카라 전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보이던 회복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페루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페루의 외환 보유고는 약 735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환율도 연말까지 US\$1=PEN 3.5~3.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



망된다.

- 또한 페루 중앙은행은 기존에 금년도 페루 예상 경제성장률을 -12.7%로 예측했으나, 지난 11월 19일 페루 중앙은행 총재 훌리오 벨라르데(Julio Velarde)는 현재 예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 실제 경제성장률은 -12.7%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페루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100년 만기 국채(연 3.3% 수익률)를 발행하기도 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각종 봉쇄 조치도 완화되고 있어 경제 회복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갑작스러운 정치 혼란에도 불구하고 페루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점은 페루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페루 정부는 2021년에도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

나19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도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페루 시장에는 다양한 진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마르틴 비스카라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반발 여론이 아직 완전히 수그러든 것은 아니므로 2021년 4월 총선 및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정치적 혼란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페루에서도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페루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무조건적인 낙관은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455 / KL MDO	'20.11.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세이셸 선망선 쿼터 한도 도달, 가다랑어 가격 상승 10% 상승한 1,304 달러에 거래

참치 허브인 방콕과 만타에서는 어획 상황이 좋지 않아 공급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세이셸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세이셸에서 거의 대부분의 선망선은 각 선박이 보유한 황다랑어 연간 쿼터가 한도에 도달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황다랑어는 선망선 가다랑어 FAD 어업 시 부수 어획된다.

가다랑어 하역량 감소로 현재 가다랑어(1.8kg 이상) 가격은 10% 증가하여 톤당 1,075 유로(1,304 달러) 정도이다.

지난 12월 4일, 세이셸 수산청은 국적선 13척 중 8척이 황다랑어 쿼터 한도에 도달해 11월 중순 조업을 중단했다고 알렸다. 소식통은 현재 모든 선박이 조업을 중단했으며 내년 1월 1일까지 항구에 정박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페인 어선 중 일부는 아직 황다랑어 쿼터가 남아있어 12월말까지 조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세이셸의 올해 황다랑어 총 쿼터는 3만 3,211톤이다. 황다랑어는 선망선 어획량의 33~35%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2,800톤의 황다랑어 쿼터를 배정받은 선망선 한 척이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합쳐 8,500톤을 하역하면 관할 당국은 쿼터가 한도에 도달했다고 여긴다.

정보에 따르면 모리셔스, 세이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캔 가공공장에는 원물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선주들은 어획된 가다랑어를 운반선으로 멀리 떨어진 만타까지 운송하고 있다. 만타 가다

랑어 가격은 현재 1,700 달러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공장에서 EU 선박이 어획한 참치로 가공한 참치캔은 EU에 수출 시 관세가 면제된다.

선주들은 어획한 참치를 만타에 더 보낼 수 있는 대안이 있어 세이셸에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양 선박들은 어획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약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년 1월 첫째 주에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 선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20척 이상의 선망선이 약 1개월 반 동안 조업을 중지해야 했다. 6월에는 세이셸 주변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일으킨 몬순으로 인해 조업이 제한적이었다.

황다랑어 가격도 톤당 1,750 유로(2,121 달러)에서 1,800 유로(2,183 달러)로 약간 상승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11일자





WCPFC 회의 종료

현재 관리조치 2022년 2월까지 연장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 회의는 회원국들이 중서부태평양 참치 자원 관련 '기본적인 보호조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며 마무리 되었다.

5일 간의 힘든 협상 끝에 위원회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열대 참치에 대한 현재 관리조치를 2021년까지 연장해 2022년 2월에 종료하기로 했다.

정보에 따르면 위원회가 내년에 새로운 보존관리 조치(CMM)를 협상하기로 동의했다고 한다.

태평양수산위원회(FFA)가 WCPFC에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FFA는 일주일간의 워크숍을 3회에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1차 워크숍은 2021년 4월에 개최하고 나머지 2번의 워크숍은 내년 연례회의 개최 전, 하반기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동 워크숍에서는 참치 관리조치 강화를 위한 제안들이 논의 될 것이다. 워크숍은 어획 전략(harvest strategies)을 채택하기 위한 길을 제공한다.

호주는 어획 전략을 제안했으며 특히 WCPFC에

가다랑어 목표 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 TRP)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퓨 자선신탁은 WCPFC의 관리조치 확대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특정 어획 전략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하며 WCPFC의 접근 방식이 참치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해야한다고 요구했다.근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선내 선원들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권고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중국이 반대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중국 연승선에서 학대 당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결국 WCPFC는 근로 조건 건과 관련하여 추가 검토를 위한 회기간 절차에 동의했다. FAD 관리에 대한 논의는 회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으나 동 이슈에 대한 공통된 조치는 채택되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15일자

오만 참치 캔 가공공장 입찰 시작

지난 12월 9일부터

오만의 Duqm 어항에 참치 가공공장 건설 관련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입찰 자격은 현지 업체 및 외국 업체로 현재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신청을 받는 단계에 있다. 입찰 주체는 국영 회사인 Oman Food Investment Holding의 자회사인 International Seafood Company (ISFC)이다. 관심이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14일까지 제안서와

기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Duqm 어항의 캔 가공공장은 연간 참치와 정어리를 8만 8,000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ISFC 홈페이지의 문서에 따르면 부지 4만m2 내에 가공 공장, 냉동 창고 시설, 사무실, 직원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9일자



日 내년 2월 첫 전국 양식 참치 품평회 열려

일본 국산 수산물 홍보 협회가 도쿄에서 개최

본 국산 수산물 판매 촉진 협의회(도쿄도 츄오구)는 2021년 2월 20일 전국 양식 참다랑어 품평회를 도쿄에서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각지의 양식 참다랑어의 품질 등을 평가하고 신형 코로나 감염병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참치를 PR하고 수요 환기에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양식 참다랑어 품평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 품평회는 일본 국내에서 참다랑어를 양식하는 생산자가 대상이다. 출품은 협의회가 각지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현(県) 지역 쿼터를 정해 모집한다. 현 지역 쿼터 수는 나가사키 현이 가장 많은 3이고, 미에현이나 고치현, 에히메현 등 기타 7개 현은 모두 1이다. 출품은 각 현 지역의 현 청이나 현 어련(漁連) 등에서 추천하고, 추천이 어려운 현 지역은 업체가 스스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쿼터 수를 초과한 응모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가 공정하게

추첨을 하여 판매자를 결정한다.

이 품평회는 도쿄도 내에서 실시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미정이다.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출품 형태는 블록이다. 심사는 전문가 5명과 일반 소비자 15명 등 총 20명이 한다. 색조와 지질(기름기), 식감, 맛 등을 심사하여 최우수상 1점을 결정한다. 출품하는 참치의 블록 포장 및 냉매 비용, 도내 배송비는 협의회가 부담한다.

협의회는 '일본 수산자원 보호협회'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인 '바다의 나라 일본'이 수산청 2020년도 보조 사업 「수산물 판매 촉진 긴급 대책 사업」을 활용하여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내 수산 관계자의 판로 구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5일자

NGO, IATTC 특별 회의 개최 요구

보존조치 미합의로 IUU 어업 우려

오IATTC 연례회의가 끝난 후 업계 안팎의 많은 사람들은 동부태평양 열대 다랑어의 2021년 보존 조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NGO와 여러 회원국은 내년 보존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멕시코가 특별 회의를 12월 31일 이전에 개최하자고 요청했다고 한다.

IATTC가 자원 관리 규칙에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2017년에도 진통을 겪었다. 기존 보존 조치가 2월 17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월 초에 특

별 회의가 열렸었다. GTA는 참치 자원 관리 부족으로 동부태평양 수역에서의 어업이 비규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할 것도 없이 동부태평양의 모든 MSC 인증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획 쿼터와 자원의 관리는 인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종 공급망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GTA는 많은 회사가 IUU 제품을 제외하는 공적 수산물 조달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열대 다랑어를 공급하는 시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9일자



키리바시 EEZ에서 한국 선망선이 가장 많은 참치 어획

2010년 키리바시 EEZ 총기척 270척 62척 증가

키리바시 EEZ 허가 어선 척수는 키리바시가 2017년에 자국 EEZ에서 원양어업국의 연승 어업을 금지한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한편 키리바시 EEZ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선망선의 허가 척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WCPFC에 제출된 키리바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키리바시 선박 허가 척수는 370척으로 지난해 대비 23%, 68척이 증가했다. 전체 허가 선박 증빙허가와 운반선을 제외한 순수 어선은 268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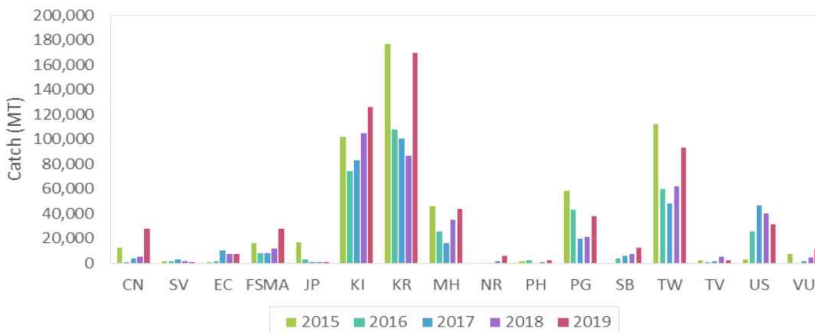
2017년에 키리바시가 자국 EEZ에서 원양어업국의 연승 어업을 금지한 여파로 많은 수의 허가가 취소되어 당시 연승선은 Kiribati Fish Limited (KFL)에서 용선한 14척 만이 남았었다. 하지만 2019년 연승선 허가 척수는 39척으로 25척 증가했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39척 중 일부는 Kiribati Island Fish Limited(KIFL) 소유 선박이다. KFL

과 KIFL은 키리바시에서 일부 소유한 합작회사이다. 예를 들어 KFL은 키리바시 정부, Golden Ocean (피지), Zhejiang Ocean Family(중국)이 합작하여 만든 회사이다.

지금까지 키리바시 수역에서 참치를 가장 많이 어획한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어획량은 2016~2018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배 증가했다. 키리바시 국적 선박의 어획량은 2019년 기준으로 한국 다음이며 지난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선박의 어획량은 2019년에 급증해 입어 선박이 증가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tuna는 일전에 중국과 키리바시 양국 정부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Taneti Maamau 키리바시 대통령은 『경제, 무역, 투자, 관광, 어업, 교육, 의료 및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Table 8. Annual vessels licensed by Kiribati, 2015-19

Year	Bunker	Carrier	Longline	Other	Pole and Line	Purse seiner	Total
2015	19	67	173	1	0	199	459
2016	16	74	219	0	0	225	534
2017	14	62	14	0	1	222	313
2018	12	65	12	1	0	212	302
2019	13	89	51	0	1	216	370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1월 25일자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은 참치 kg당 가격은 연어, 대구, 새우, 가다랑어, 명태 순

참치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류로 특히 캔 가공품 형태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유럽인들이 참치를 선호하는 것은 맛, 건강상의 이점뿐만 아니라 연어와 대구와 같은 다른 어류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연어와 대구는 공급 부족으로 과거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다.

2020년 EU 어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총 소비량 상위 어류는 참치 및 참치 유사종이 13%로 1위, 연어와 대구가 각각 9%로 공동 2위, 알래스카 명태가 7%로 4위, 청어가 5%로 5위, 민대구가 4%로 6위를 차지했다. 1인 당 평균 참치 소비량은 3.05kg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인 1인 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은 24.36kg이다. EU 외부에서 유입된 수산물(어획, 양식 포함)은 634만톤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으며 2010년 대비 거의 46만톤 증가했다. 수입 금액은 272억 1,000만 유로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8년 대비 6억 5,900만 유로가 증가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38% 증가했다.

가다랑어는 가장 인기 있는 종이지만 가장 많이 수입되는 종은 아니다. 2019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종은 연어이다. 연어 수입량은 노르웨이가 96만 6,220톤으로 가장 많았다. 에콰도르와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 많이 수입되는 대구가 뒤를 이었다. 이어서 에콰도르에서 많이 수입되는 가다랑어,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알래스카 명태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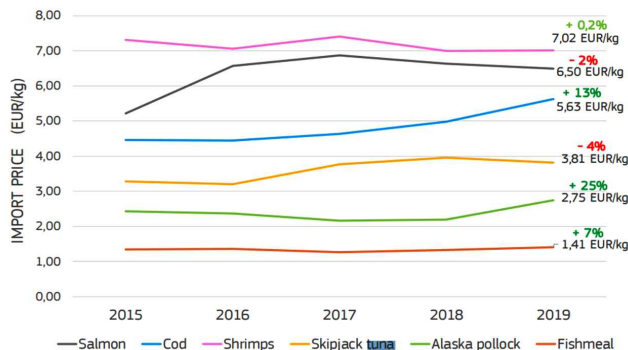
5년 동안 수입 가격 추이를 보면 연어와 대구는 가다랑어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다. 2019년에 kg 당 참치 수입 가격은 연어보다 2.69 유로, 대구보다 1.82 유로 낮았다. 가다랑어는 지난 5년 동안 kg 당 3.2~4 유로 사이에서 수입 가격이 책정되었다.

2010~2015년까지 블록으로 운송된 연어의 kg 당 평균 가격은 4.6 유로 정도였다. 2016~2019년에는 kg 당 평균 6.3유로였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EU의 대구 수입은 50만 3,784톤에서 49만 5,887톤으로 감소한 반면 수요는 증가해 kg 당 수입 금액은 13% 상승했다. 2019년에 대구 kg 당 수입 가격은 10년 내 최고치로 5.63 유로를 기록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7년 이후 수입 가격이 급상승했다.

2019년에 알래스카 명태는 참치 보다 kg 당 1.06 유로 저렴했다. 명태는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3분의 1 정도가 미국에서 수입되었다. 2019년 명태 수입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CHART 38
NOMINAL PRICES OF TOP VALUED IMPORTED MAIN COMMERCIAL SPECIES AND % VARIATIONS 2019/2018
Source: EUMOFA elaboration of Eurostat-COMEXT data (online data code: [DS-016890](#))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1일자



스페인 Bermeo 지역 선망 부문 18억 유로 창출

Bermeo 지역, 스페인 선망 분야에서 일자리, 경제 효과 지대

Bermeo Tuna Capital World Association (BTCW)과 스페인 연구 그룹 AZTI가 공동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스크(Basque) 자치 정부의 선망 부문은 스페인 전체 참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매출액 기준으로 18억 유로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바스크 선망 부문은 선박 척수, 일자리 창출, 경제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스페인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 선망선 70척 중 77%인 54척이 바스크 참치 부문에 속해 있다. 또한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을 운항하는 27척의 지원선과 6척의 운반선도 바스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Bermeo 지역에는 바스크 자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어항이 있다. 이 도시에는 Echebaster, Albacora와 같은 주요 참치 어업 회사들이 있다.

BTCW의 분석은 2015, 2016, 2017년 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스페인 참치 선단이 많이 잡는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에 초점을 맞췄다.

스페인 참치 선망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4만 7,025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고 스페인을 기반

으로 하는 일자리는 9,701개로 80%가 가공 분야이다. 9,701개 일자리 중 61%가 바스크 산업계에서 창출되었다. 3분의 1 이상, 3,714개는 바스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 세계 매출로 보면 스페인 전체 선망 분야는 34억 5천만 유로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고 그 중 바스크 부문은 18억 8천만 유로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참치 부문이 스페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이다. 글로벌 측면에서 스페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생산 1유로 당 3.85유로이다. 사회적으로 스페인에서 백만 유로 당 3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Bermeo 지역에서는 29개) 천연 자원으로 보면 어류 1,000톤 당 71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올해 스페인 참치 어업인 단체들과 가공업자들은 자율할당관세(ATQ)에 대해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업인 단체들은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자속 로인을 EU 시장에 덤핑할 수 있게 하는 ATQ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1월 26일자

참치 냉동 눈다랑어는 한 단계 높은 시세

지물 지중해산 등 로인 수급 부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침체된 냉동 참치 살코기(赤身) 시세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도쿄 도요스 시장 도매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상순 냉동 대형 눈다랑어(1마리 40kg 이상의 눈다랑어) 인도양 대만 뱃떼기(一船買) 구매 가격은 kg 700 엔으로 전월 상순보다 100 엔 올랐다. 이례적인 상승폭이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반입이 줄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시세가 오르고 있다고 도매시장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지물(脂物)은 냉동 지중해 참다랑어 가운데 등 로인 수급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가정식 수요 증가에 의한 양관점용 공급 증가를 따라 빠르게 소진되었다.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갖고 있는 재고가 거의 없는 도매, 가공 업체가 많다고 한다. 12월 신물 반입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생산하려는 가공업자도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7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약간 상승

1,350 달러 수준에서 거래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몇 주 동안 지지부진한 이후 되살아나는 약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비교적 보수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냉동 가다랑어 원물이 2주 전에 보도한 톤당 1,300 달러 수준에서 약간 상승하여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한 방콕 가공업자는 『모두가 이미 휴가 분위기로 거래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 언급했다. 다른 소식통은 상승 추세로 아직 톤당 1,400 달러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현재 1,350 달러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이맘때쯤에는 FAD 금지가 해제된 후 가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했다. 현재와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이 시기에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가다랑어 원물이 톤당 900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이번에 FAD 금지 후 중서부태평양에서 방콕으로의 공급은 예년과 달리 부진해 보인다. 한 선주는 FAD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PN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모든 항구에서 전채 물량이 8월 이후 감소했다고 한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공 속도가 느려져 가공업자들은 원재료 구입에 보수적일 것이다. 가다랑어 가격은 저조한 어획과 많지 않은 수요로 현재 가격 수준을 잠시 벗어날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3일자

만타 가다랑어 공급 악화로 높은 가격 유지

톤당 1,700 달러에 거래

만타항에는 현재 냉동 가다랑어 하역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동부태평양 선박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선망선이 IATTC 어장 폐쇄(veda)로 인해 항구에 정박해 있어 공급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소식통은 만타에서 가다랑어 가격이 톤당 1,700 달러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12월에 1,700 달러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연말로 가는 몇 달 동안 가다랑어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이러한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600~1,700 달러에

서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소식통은 크기가 작은 가다랑어는 1,600~1,700 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1,700 달러 정도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공업자들은 11월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고 선주들은 낮은 입찰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어장 폐쇄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선주들이 2021년 1월에 가다랑어 가격이 1,300~1,400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2일자



IATTC 연례회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전 결의안 종료, 2021년 보존조치 없는 채로 시작

12월 4일에 종료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2021년 참치 보존 조치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IATTC 관할 수역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관리 조치 없이 2021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미 여러 당사국이 회의 결과에 실망감을 표했다.

2017년에 채택된 결의안 17-02는 IATTC에 어장 폐쇄, FAD 제한과 같은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제공했다. 이 결의안은 3년 동안 유지되었고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3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채택되어야 했다. 회의의 마지막 날 전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EU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콜롬비아의 제안서는 결의안 17-02를 기반으로 하지만 선망선단의 통제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제안서에는 선박 당 활성화 FAD 축소, 원격 재활성화 FAD 부이의 완전한 금지, 모든 활성화 FAD에 대한 일일 정보를 IATTC에 보고하는 선박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처음에 이 제안(EU 제안서와 매우 유사)을 지지했으며 대다수의 회원국들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에콰도르, 미국, 엘살바도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에콰도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프로토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에콰도르는 1년 연장된 시간 동안 IATTC가 보다 나은 과학적 조연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각자의 제안이 과학자문위원회(SAC)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SAC

가 제출한 한 문서에는 『현재 결의안(C-17-02)의 조항들을 2021년 동안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들, 특히 FAD와 관련된 조항들의 개정 및 업데이트를 권장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미국은 에콰도르를 지원하며 결의안 17-02를 1년 연장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이를 거부하며 FAD 조치들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대표단은 현행 규정을 6개월 동안만 연장하고 내년 초에 임시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콜롬비아는 일본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미국, 에콰도르, EU는 반대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장은 현재 결의안의 유효 만료일을 확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규정이 없는 어업은 비규제 어업으로 볼 수 있어 IUU로 간주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첫 어장 폐쇄가 실시되는 내년 7월 이전에 회의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2021년 차기 연례회의까지 각 국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현재 보존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7일자





EU, 키리바시 옐로우 카드 해제

4년 반 만에

키리바시는 이제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이사회(EC)는 키리바시에 옐로우 카드를 부여한지 4년 반 만에 IUU 어업과 관련한 ‘수산업 거버넌스 결점 해결’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옐로우 카드를 해제했다.

유럽연합(EU)은 12월 4일에 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EC는 키리바시의 항구를 통해 양륙 또는 전채되고 있는 어획물 정보의 투명성, 특히 선박조업일수제도(VDS) 관련 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2016년 4월에 키리바시에 옐로우 카드를 부여했다. 옐로우 카드 이후 키리바시는 IUU 어업과 싸우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했다. EC에 따르면 키리바시가 취한 아래와 같은 조치 중 일부가 옐로우 카드 해제 조치를 결정하게 했다고 한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는 허가 억제 방안을 포함한 수산업 법률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주요 항

구에 전채 및 양륙하는 어선 등록 및 통제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등 수산 통제 시스템의 전면 개혁, △산업용 선박에 선박조업일수제도 전면 적용을 포함한 모니터링·통제·감시(MCS) 도구 강화, △항구 입항 및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수산물 수입 및 수출 조건을 설정하여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 개선, △행정절차 및 훈련을 강화하여 적절한 법 집행 제고, △키리바시 수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국과의 협력 개선, △IUU 어업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인적 자원 대폭 강화.

PNG, 솔로몬 제도, 투발루와 같은 다른 PNA 국가들도 이전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었다. 동 국가들의 옐로우 카드는 각각 2015년 10월, 2017년 2월, 2018년 7월에 해제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7일자

PNA 신임 사무국장으로 Sangaalofa Clark 임명

PNA 정책 매니저로 8년 간 근무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신임 사무국장으로 Dr. Sangaalofa Clark가 선임되었다. 전임 사무국장 Ludwig Kumoru는 4년 동안 직을 유지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Clark는 지난 8년 동안 PNA 정책 매니저(Policy Manager)로 근무하며 선박조업일수제도(VDS)를 관리했었다. 정책 매니저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2년 동안 PNA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LinkedIn에 따르면 그녀는 시스템 생물학 박사로서 생명 과학, 수학·컴퓨터 모델링이 주 전공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1월 20일자



태평양 눈다랑어 보존에 “예방 조치를”

OPRT 국제기구에 요청서 보내

책임 있는 참치어업 추진기구(OPRT)는 11월 18일 중서부 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의 페레티·P·테오 사무총장에게 눈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해 보존 관리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WCPFC는 2013년 눈다랑어 자원 회복 등을 목적으로 2014~2017년 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과학소위원회에서는 2016년까지 눈다랑어는 남획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2017년에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해구 분할을 도입하여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건전한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일변했다.

이 평가에 따라 선망 집어장치(FADs)를 이용한

조업의 원칙 금지 기간 완화 등이 채택되었다.

요청서에서는 새로운 자원 평가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는 예방적 어프로치를 적용한 리스크가 낮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망했다.

눈다랑어, 황다랑어의 목표 관리 기준치 설정에 대해 주 어업인 연승어업 뿐만 아니라 FADs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선망 등 다른 어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것과 단위 노력량 당 어획량(CPUE)을 고려해 결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3일자

냉동 대형 눈다랑어 700 엔 회복

인도양 대만 一船買(뱃떼기) 거래, 앞으로는 "주시해야" 의견도

낮은 수준이 계속된 냉동 참치 시세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냉동 눈다랑어의 지표가 되는 인도양 대만선 일선매(뱃떼기) 구매 가격은 대형 눈다랑어(1마리 40kg 이상)이 11월 초 현재 kg 700 엔으로 전월 상순부터 100엔 상승했다. 도쿄 도요스 도매 소식통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반입량이 줄어들었고, 시세가 오를 때 구매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한다.

도매 소식통에 따르면 산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에 영향을 받아 10월 하순에 시세를 대형 눈다랑어 100 엔, 중형 눈다랑어(1마리 25kg 이상) 50 엔으로 단숨에 끌어 올렸다. 11월 들어 주춤하기 시작 현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황다랑어 시세도 1마리 25kg 이상이 50 엔 인상된

550 엔을 기록했다.

살코기(赤身) 시세를 끌어 올리는 한 요인이 된 것이 지중해산 참다랑어 등 로인 공급난이다. 등로인은 가정식 수요 확대로 소진이 이뤄져 『도매업체도 가공업체들도 대부분 재고가 없는 곳이 많다』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12월부터 입하를 시작하는 신상품으로 연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살코기를 앞당겨 자르고 있으며 그것이 10월에 살코기에 매수가 집중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술집이나 고급 초밥집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대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냉정하게 시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도매 관계자는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0일자



참치 컨테이너 운송에 더 나은 관리 필요

퓨 자선신탁 연구 의뢰 결과

비영리기구인 퓨 자선신탁에 따르면 참치 운송에서 컨테이너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수산기구의 관할하에 있지 않아 더 나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퓨 자선신탁은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에서의 전 재·운송 관련 세 가지 연구를 의뢰했다. MRAG Asia Pacific은 중서부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을 조사했고 Moving Tuna는 서인도양 지역을 조사했다. 퓨 자선신탁은 기관 블로그에 연구 활동의 개요를 올리고 연구에서 발견한 세계적인 트렌드 중 하나는 컨테이너 운송의 증가라고 언급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기술의 발전과 화물 운송비용 감소에 힘입어 리퍼 컨테이너(냉장, 냉동 가능 컨테이너)가 기존 운송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컨테이너 공급망 모니터링에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어업 관리 목표를 달성하고 IUU 어류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퓨 자선신탁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은 다양한 물건들을 운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치 지역수산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운반선의 옵서버 승선 요구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 구멍은 하역, 환적, 수입, 수출과 같이 컨테이너 운송 형태가 다양해 더욱 복잡해진다.

일부 지역은 참치 운송에 컨테이너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아비장과 같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은 컨테이너 운송 인프라가 태평양 지역보다 더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리퍼 컨테이너로 어류를 운송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컨테이너로 운송되

는 어류의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서양의 한 운송업자는 40%가 운반선으로, 40%가 컨테이너로, 나머지 20%가 현지 가공 시설에 하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일부 회사는 모니터링 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ICCAT 규정에 따르면 운반선은 어선으로 간주되지만 리퍼 컨테이너선은 어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규정 준수 비용도 다양하다. GreenSea Chartering사는 운반선 당 규정 준수 비용을 4만 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서인도양 지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에서 리퍼 컨테이너가 많이 운용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대만 운송선은 동 지역에서 운반선에 564회 전재했고 컨테이너에 280회 적재했다. 빅토리아항의 선망선 어획물은 냉동 창고로 입고되지 않은 물량 중 55%가 운반선으로 45%는 리퍼 컨테이너에 적재되었다.

중서부태평양 지역에서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국은 관련 시설과 물류 인프라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중서부태평양에서는 부두 공간 제약, 한 번에 운송 가능한 물량의 차이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보다 운반선 전재가 우선시 된다.

하지만 연안국 어업 관계자들은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컨테이너를 사용은 태평양 도서국에서 아시아 운송 기준으로 기존 화물 운송 방법 보다 톤당 약 60~70 달러 저렴하며 자동 분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1월 20일자



스티로폼 용기로 위생 강화, (주)羽根 대형 참치용 어상자 1마리 130~160kg 크기 참다랑어 수송용

스티로폼 용기를 판매하는 일본 (주)羽根(나고야시)은 1마리 130~160kg 크기의 참다랑어에 맞춘 수송용 보냉 용기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참치 수송은 나무 상자 및 골판지 상자가 중심이지만 도쿄 도요스 시장 등 소비지 시장을 비롯해 산지 시장에서도 고급 위생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생적인 스티로폼 상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계자로부터의 주목도도 높다.

참치 보냉 운송 상자(3L)의 외부 치수는 길이 182센티미터 × 폭 71센티미터 × 높이 615센티미터다.

회사 관계자는 물고기용 스티로폼 중 가장 큰 사이즈로 지게차에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상자의 내부는 참치의 체형에 맞춰 이 회사의 독자적인 「R형상(의장 등록)」을 채용했다. 머리와 꼬리 부분에

경사를 지음으로써 어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기밀(高気密) 감합(嵌合)으로 보냉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회사는 원료 업체와 전국 각지의 성형 업체 모두 일관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제품 설계와 정밀 금형 제작, 더욱 엄격한 생산 관리 하에 고품질의 스티로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주)羽根=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마루노우치 1의 17의 19
(전화) 052 · 221 · 5411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3일자





日 오징어 10월 어획량 70% 증가 신선 56% 증가, 냉동 3배 넘어 ... 全漁連 집계

일본 JF全漁連이 집계한 10월의 국내 오징어 어획량(신선·냉동 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한 6,903톤이었다. 신선은 산리쿠 지역에서 트롤 어선 어획 호조로 56% 증가한 5,769톤을 기록했다. 냉동은 동해 지구로의 입항이 10월에 늦춰져 3.3배인 1,135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신선 물은 산리쿠 지역에서 2.4배인 2,911톤을 어획했다. 이 중 아오모리현 하치노헤는 22% 증가한 1,065톤, 이와테현 쿠지·미야코·야마다는 9.7배인 1,217톤, 미야기현 이시노 마키·오나가와는 2.7배인 586톤이었다. 이시카와 등이 신장된 동해 지역은 57% 증가한 551톤, 규슈 지역은 11.2배인 348톤이었다. 홋카이도는 6% 감소한 1959톤이었다.

냉동 물은 하치노헤에서 8.3배인 141톤을 어획했다. 동해 지역은 3.3배인 991톤으로 이 중 아파가타가 97% 증가한 401톤, 이시카와가 6.8배인 528톤이었다. 어획량의 증가 등으로 10월의 평균 kg 당 가격은 신선 물이 28% 하락한 589 엔, 냉동 물은 29% 하락한 715 엔을 기록했다.

오징어의 어획량은 2016년 6만 4,000톤을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7년이 5만 4,000톤, 2018년 4만 2,000톤, 2019년 3만 3,000톤으로 부진했다.

2020년의 어획량은 전년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1~10월 전국 누계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2만 9,203톤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1일자

日 신선 살오징어 저인망 중심 25% 감소한 3,030톤 1~27일 홋카이도 라우스 정치망 격감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27일 일본 주요 항구 신선 살오징어 어획량은 전년 동기보다 25% 적은 3,033톤이다. 전년 동기 정치망을 중심으로 2,178톤을 어획했던 홋카이도 라우스(羅臼)가 42톤으로 줄었다. 올해의 중심은 미야기현 이시노마와 이와테현 미야코의 저인망 어획물이었다. 11월 어획량은 아직 집계 도중 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살오징어 대 흥어가 시작된 2016년 이후에는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3,000톤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측은 밝혔다. 다만 흥어 전이나 전년보다 적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11월 어획 지

역의 중심은 산리쿠의 저인망 기지다. 10월의 호조세가 11월에도 이어졌다고 센터 측은 말했다.

이시노마키에서는 같은 기간에 915톤을 어획해 10배 이상이었다. 하순의 어체 사이즈는 1마리 300~400g이었다. 미야코도 492톤으로 64% 증가했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는 저인망과 낚시어업으로 271톤을 어획했지만 10% 감소했다. 하치노헤의 하순 중심 사이즈는 400g 정도로 크다.

예년이라면 성어를 마쳤을 동해에서 어획이 계속 되고 있는 것도 이번 기간의 특징이다. 가나자와 어획량 212톤은 전년의 38배이고 하순의 어체 사이즈는 240~300g이 중심이 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30일자



포클랜드, 영국에 EU와의 수산 협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수산업 황폐화 우려,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호소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 포클랜드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가 해외 영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 왔다. 특히 우려되는 영역 중 하나는 수산업 분야이다. 포클랜드 정부는 영국 정부와 대화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포클랜드 정부에서 천연자원과 브렉시트 관련 포트폴리오 책임(portfolio lead)을 맡고 있는 MLA Teslyn Barkman은 브렉시트로 인해 2021년 1월 1일부터 포클랜드가 수출하는 수산물에 관세가 최대 18%(로리고 오징어 6%, 어류 18%) 부과되는 현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수출 수산물에 관세가 부과될 시 현재 포클랜드 GDP의 40% 이상과 정부 수입의 최대 60%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업 부문이 타격을 받아 포클랜드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Barkman은 『우리는 브렉시트 관련 협상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쳐지지 않도록 영국이 추구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과도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Barkman은 『포클랜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영국 총리, 영국 외무 장관, 영국 해외 영토와 지속가능한 개발(Overseas Territo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장관, EU 내에서 현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위 지도자들에게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클랜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 ① 계속되는 영국과 EU의 협상에서 포클랜드 무역 이슈 재논의,
- ② EU 회원국의 어업 접근 현상 유지에 대한 대가로 현재와 같이 포클랜드에 대한 관세 및 쿼터 할당 없는 무역 지속,
- ③ 영국 정부가 영국과 EU의 해외 영토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여 EU 탈퇴에 영향을 받는 모든 해외 영토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

포클랜드의 수산물 수출(대부분 오징어)은 80% 이상이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다.

* 기사 출처: EXPRESS, 2020년 12월 2일자





美 동베링해 명태 2021년 쿼터 4% 감소 9년 만에 감소한 137.5만톤, NPFMC 저서어류 TAC안

미국 베링해·알류산 열도 해역에서 2021년 저서어류 쿼터 감소가 굳어졌다.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최근 2021년과 2022년 잠정 어획 쿼터 안을 승인했다.

2021년의 명태 총 허용어획량(TAC)은 주력인 동베링해가 2020년 대비 4% 감소한 137만 5,000톤으로 9년 만에 쿼터가 감소되었다.

<은대구 쿼터 대폭 증가>

은대구는 베링해·알류산 열도 해역 모두 쿼터가 증가되었다. 베링해는 82% 증가한 3,396 톤, 알류산 열도 해역은 2배인 4,717톤이 되었다.

자문위원회는 TAC를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보다 적은 수량 안을 제시했지만 본회의에서는 ABC와 TAC를 같은 양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구는 베링해·알류산 열도 해역 합계가 12만 5,176톤이다. 알류산 해역은 쿼터를 전년 대비 동결했지만 주력인 동베링해는 21% 감소한 11만 1,380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가자미류는 많은 어종에서 쿼터가 증가했다. 황금가자미는 베링해·알류산 열도 해역에서 총 33% 증가한 20만톤, 검정가자미는 14% 증가한 6,025톤, 화살치가자미는 32% 증가한 8,982톤이었다.

임연수어는 베링해·알류산 열도 해역이 총 5% 증가한 6만 2,257톤이다. 볼락(락피쉬)류는 장문볼락이 쿼터가 줄어 베링해 알류산 열도 해역에서 16% 감소한 3만 5,899톤이다. 아라메누케(한글명 없음), 양볼락 쿼터가 증가되었다.

미국의 명태 쿼터는 베링해·알류산 열도 해역 외 알래스카 만이 있고,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2021년 알래스카만의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은 2020년 ABC와 거의 같은 양인 11만 6,000톤이며, 쿼터도 위원회 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인 동베링해가 4% 감소했다고는 해도 자원량 공급량은 안정되어 있다고 봐도 좋다.

<미국과 러시아 명태 공급 안정>

미국과 함께 명태 공급국인 러시아의 2021년 극동 해역 전체 총 허용 어획량(TAC)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199만 5,900 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러시아 명태 TAC는 2007년 무렵부터 증가 추세를 이어가 2012년 이후 170만~180만톤에 머무르고 있다. 자원량은 최근 안정되어 러시아의 2018년, 2019년의 어획량도 약 170만톤에 달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5일자





9천만 달러 러시아 첫 명태 슈퍼트롤 인도 신조선 2021년 초 조업 예정

러시아의 어업 거인 Russian Fishery Company (RFC)는 100m 규모의 슈퍼트롤선을 인도 받았다.

터키 Tersan 조선소는 노르웨이 Skipsteknisk사가 개발한 ST-191L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조하고 있는 선박 중 첫 번째로 Vladimir Limanov선을 인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총 건조 비용은 8천만 유로(8천 9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RFC의 Gleb Frank 회장은 『새로운 슈퍼 트롤선의 시운전으로 러시아 어업은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선상 냉동 필렛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이며 러시아에서 고품질 명태 연육을 생산하는 최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며 『나는 우리의 제품이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시장에서 찾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이 슈퍼 트롤선은 전장 108.2m, 폭 21m이며 139명이 승선할 수 있다.

어창 용적은 5,500m³이며, 하루에 약 300톤의 명태와 200톤의 태평양 청어를 잡을 수 있으며 연간 어획량은 6만톤 이상이다.

신조선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진 어류 가공 기술을 사용하여 H&G 및 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 선동 명태, 청어 필렛, 명란, 어분, 어유, 연육 등 다양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만 5천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신조 슈퍼 트롤선은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러시아 어선에 비해 어류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줄였다. 선원 공간으로는 넓은 식당, 사우나, 체육관, 영화관이 설치되었다.

신조선은 내년 초부터 조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RFC가 건조 중인 나머지 10척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기반을 둔 Admiralty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다. RFC에 따르면 신조선들은 약 1년의 간격을 두고 2척씩 건조되어 현 노후선을 대체할 것이다. 2021년에 2척을 인도 받을 예정이다.

Russian Fishery는 올해 31만톤의 쿼터를 보유한 러시아 3대 어업 쿼터 보유 회사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Russian Fishery의 명태 쿼터는 28만 3,800톤으로 세계 네 번째 명태 쿼터 보유 회사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2월 14일자



알래스카 명태 산업계 A 시즌 대비 성장하는 시장, 어려운 조업 상황, 백신 공급 희망

알래스카 명태 산업계는 다가오는 A시즌에 대비하고 있다. 알래스카 연안의 어업-가공업자들에 따르면 산업계는 보다 나은 어기, 강력한 수요 유지, 백신 공급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고 한다.

A 시즌을 앞두고 선주들은 주요 고객들과 대량 거래를 논의하고 있거나 확정지었다. 하지만 시장에 남아있는 많은 의구심들이 장기 거래를 꺼리게 하고 있다.

한 주요 생산회사의 임원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용하다』 고 말했다.

이 임원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의 침묵은 코로나와 관련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 시장 상황에 대한 의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식품 서비스 분야의 판매는 감소했지만 소매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으로 블록형 명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미국 시장에서 도드라졌다.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B시즌(6.1~10.31)에 명태 크기가 작고 어군이 넓게 퍼져 있어 조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론적으로 TAC 중 6만 5,000톤을 소진하지 못했다.

주요 가공품 생산도 감소했다. 연육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약 11% 감소했고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deep-skin fillet)은 지난해 대비 13.5% 정도 감소했으며 가시 제거 필렛(pin-bone-out fillet)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가까이 감소했다.

해당 임원은 2021년 A시즌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봤을 때 다가오는 A시즌에는 올해 A

시즌 보다 작은 크기의 어류들이 더 많이 섞여있을 것이다』 고 말하며 『하지만 크기가 큰 어류를 타겟으로 조업하기 쉬운 어군 패턴일 것이다』 고 덧붙였다.

생산자들에 따르면 다가오는 A시즌 어획물의 제품 가공에서 어분 가공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이 임원은 『내년에 일부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며 『가시 제거 필렛의 경우 톤당 3,500~3,600 달러로 B시즌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북태평양어업관리협의회(NPFMC)의 서부베링해 명태 TAC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2019년 서부베링해 명태 TAC는 142만 5천톤이었다. 2021년 TAC 최종 결정은 12월 첫째 주 주말 또는 둘째 주 주중으로 예상된다.

국제 저서어류 포럼에서 발급한 책자에 따르면 어선어업으로 어획하는 주요 흰살생선의 총 공급량이 2021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명태가 4.32%로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아울러, 2021년 전 세계 알래스카 명태 어획량은 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러시아 명태 어획량이 7.6% 증가하여 총 188만 4천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알래스카 명태 어획량은 150만 7천톤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2월 2일자



Russian Fishery Company 명태 연육 생산 계획 내년 초부터 생산 예정

Russian Fishery Company(RFC)가 명태 연육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RFC의 명태 연육 생산 움직임은 RFC를 러시아 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순위에서 곧바로 상위권을 차지하게 하고 글로벌 연육 시장에서 주요 업체로 부상하게 할 수 있다.

RFC는 내년부터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시작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Kseniya Tsymbal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명태 연육의 잠재적 구매자들과 대화중이며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RFC의 부가가치 명태 생산 확대 전략은 선상에서 상당한 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모선 건조로 힘을 받고 있다.

RFC는 러시아연방수산청과 신조선 10척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며 그 대가로 투자 쿼터를 할당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10척 외에 터키에서 한 척이 더 건조되고 있다.

RFC는 『현재 회사 어선단의 제품(필렛, 다진 어육) 생산 능력은 총생산 어류의 30% 정도 이다』 며 『어선 신조가 마무리되면 100% 선상에서 고차 가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RFC의 첫 번째 신조 트롤선은 2021년에 시험 운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여기에 동선박에 첫 번째 투자 쿼터가 할당될 예정이다.

RFC의 올해 명태 TAC는 총 28만 3,800톤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명태 쿼터를 많이 보유한 회사가 되었다. 올해 9개월 동안 동 회사의 명태 어획량은 23만 1,000톤을 초과하여 TAC의 80%를 달성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1월 11일자





日 콩치 어획 최저 확실, 최종 3만톤 농후 전국 콩치붕수망조합 11월말 28% 감소한 2만 7,197톤

일본 전국 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 12월 10일 발표한 11월 말 현재 일본 전국 콩치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2만 7,197톤이었다.

장관 허가인 콩치붕수망 어선은 12월에도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만 올해의 최종 실적은 3만톤 전후일 것으로 보이며, 반세기 만에 흉어 기록을 갈아치웠던 지난해(4만 517 톤)를 밑도는 역사적인 흉어가 확실해지고 있다.

홋카이도가 46% 감소한 1만 1,612톤이고, 혼슈는 5% 감소한 1만 5586톤이었다. 전국 어획 금액은 10% 증가한 134억 9,597만 엔. 전국 평균 단가(10kg 당)는 1.5배인 4,962 엔이었다.

11월 한 달의 어획량은 1만 4,284톤이었다. 유망 어업이 시작된 7월부터 10월 말까지 1만 2,913톤을 상회, 어획 정점을 찍었다. 콩치는 10월까지 그 해 어획 금액의 60~80%를 차지하는 것이 통례였지만 지난해쯤부터 10월까지 조업이 부진해 11월에 어획이 신장하는 경향이 현저해져 이번 어기는 일본 근해로의 내유 지연이 한층 표면화되었다.

이번 어기도 주요 어장은 일본 연안에서 먼 북태평양 공해상에 형성되어 어기 초반에는 항해능력이 좋은 대형선에 국한돼 조업이 이뤄졌고, 중소형선은 제대로 조업을 할 수 없었다.

10월이 되면서 조업 양상은 서서히 호전되었다. 10월 중순 이후 도우토우와 산리쿠를 합한 1일 어획량이 1,000~2,000톤으로 집계되었고, 11월 14일에는 이번 어기 가장 많은 하루 3,000톤 이상을

기록하는 등 어기 후반에 성어기를 맞이했다. 산리쿠·조반에서 어획이 증가해 11월의 혼슈 지역 어획량은 1만 589톤으로 10월 말 시점보다 3배 증가했다. 한편 홋카이도는 3,697톤으로 10월보다 50% 증가되었다.

항구별로는 홋카이도 하나사키 항이 8,615톤으로 최고였다. 이어 이와테·오후나토 항이 5,633톤, 미야기·오나가와 항이 4,485톤으로 이어졌다.

12월 상순도 산리쿠와 조반 방면을 중심으로 많은 날에는 하루 수백 톤의 어획이 이뤄졌다. 시사통신의 어획 집계에 따르면 12월 10일 현재 동월 누계는 1,480톤이다. 지난해 12월 어획량은 약 2,800톤으로 지난해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올해의 최종 어획량은 3만톤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4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2월 11일자





콩치 2년만에 3천톤 상회

80~90g 중심으로 원료용

사상 최저였던 전년 어기를 하회하는 수준의 추세를 보이던 2020년 어기 콩치붕수망 어업이 11월 14일 태평양 측 네무로부터 오나하마까지의 8개 항구 합계로 1일 3,000톤을 넘어서었다. 잠정치인 3,285톤은 재작년 10월 23일(3,026톤) 이후 처음으로 약 2년만에 3,000톤대로 같은 해 10월 6일(3,242톤)을 약간 상회, 지난 몇 년 간 하루 최다 어획량을 갱신했다.

어획량이 다소 상향되었던 10월 중순 이후 하루 1,000톤 이상이 된 지 7일째다. 11월 9일에는 이번 어기 처음 2,000톤 이상이 된 2,192톤을 기록했지만 어장이 먼 곳에 있는 것도 있어 어획은 산발적으로 11월 11일, 12일은 제로가 되는 등 불안정했다.

이번 회에 3,000톤 초과도 기후 급변을 대비해 기항 시점이 겹쳐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게 된 요인이 크다』고 콩치붕수망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겨우 전년 60% 정도의 어획에 그쳐 있는 중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뉴스가 되었다.

어장 중심은 미야기, 킨카산(金華山) 근해인 동경 146~148도 해역이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공해 경계선 부근이 주요 어장이 되고 있다.

어획 중심은 한 마리 80~90g이 대부분으로 작아서 주로 통조림 등 가공 냉동 원료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전국콩치붕수망어협은 『현재 상태로 겨우 2만톤을 넘어서었다. 상당히 늦게까지 이뤄진 내유가

계속되지 않으면 전 어기의 4만 517톤을 넘기도 어렵지만 견조한 가격으로 인해 어획 금액으로는 전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어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요스 선어는 변함 없어>

하루 3,000톤 이상에 따라 휴장 직후인 11월 16일 도쿄 도요스 시장의 유통량은 1만 2,696 상자로 이번 어기로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수량은 늘었지만 어획 조성은 소형 중심이기 때문에 선어 유통에서 특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중앙어류 관계자는 말했다.

11월 16일 현재 도요스 어시장 도매 가격은 4kg 30마리 들이로 kg당 500 엔 정도이며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입하 대상으로는 이와테가 주축이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아직 어획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편, 말단 거래처에서의 반응은 『예년과 다를 바 없다』며 『홍어 중에서도 콩치 인기가 높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1월 17일자





일본 2021년 6월 “HACCP” 완전 의무화 식품 전체 사업자 위생 관리 기록 필수적

일본에서는 내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식품 위생법에 따라 HACCP 제도화가 시작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식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대규모 업체는 HACCP에 근거한 위생 관리, 식품 제조에 종사하는 직원이 50명 미만의 중소 영세 업체는 HACCP 개념을 도입한 위생 관리를 의무화 한다. 중소 영세업체는 각 업계 단체가 작성한 지침서에 따라 식중독이나 이물 혼입 대책을 실천하게 된다. 올해 6월 1일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에 전면 시행한다. 식품을 만들고, 운반, 보관, 판매하는 등의 모든 식품 사업자는 향후 약 반년 동안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HACCP 지원법에 근거한 장기 저리 용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설 정비와 설비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중소 영세업이면서도 HACCP 제도화를 계기로 설비 투자를 하고 위생 관리를 고도화해 HACCP 인증을 획득하고 판로를 해외에서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 국내는 향후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애프터 코로나를 대비, 최근 일식 인기가 퍼지는 해외시장에 상품을 팔아 생존하기 위한 것이다.

HACCP 인증 및 일반 위생 관리 향상을 목표로 중소 영세 업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시설, 설비를 정비하기 위한 장기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HACCP 지원법에 따라 살균수 공급 장치 및 냉장고 등 위생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설 정비, 설비 도입이라면 폭넓게 대출 대상이 된다. 융자 희망자는 시설·설비 정비에 의해 위생관리가 어떻게 향상되는지 등 도입 효과를 나타낸 고도화 계획 등을 작성하여 식품 유형별 지정 인증 기관(수산 가공품은 대일본 수산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일본 정책 금융 공고에서 장기 저리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12월 4일 현재 2억 7,000만 엔까지 0.17~0.25%, 2억 7,000만 엔 초과는 0.32~0.40%이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 15년 이내(거치 기간 3년 이내) 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 부담액의 80% 이내 또는 20억 엔 중 적은 금액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5일자

생 미끼용 고등어 90 엔대 고공행진 정어리는 큐슈産 강보합세

생 미끼용 고등어 시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월 상순의 시세는 홋카이도 산 1마리 100~300g 사이즈가 92~91 엔(큐슈·시코쿠 양식업자 입고 가격, kg 가격), 큐슈산 200~400g 사이즈는 100 엔 선이며, 100g 대 소형은 90 엔 중반으로 11월 상순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1월 하순부터 산리쿠의 선망 조업이 분

격화 되고 있어 앞으로의 어획 동향이 주목된다.

정어리류는 홋카이도産이다. 도우토우産 어획이 종료되었다. 재고 거래는 40~60g 사이즈인 정어리 상품이 65~63 엔으로 11월초순과 보합세다.

큐슈産 30~50g 사이즈의 소형 정어리에 우루메 혼합이 58~56 엔으로 강보합세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4일자



日 10월 수산물 수출, 수량은 증가 금액은 감소 냉동 고등어 수량 3배, 가다랑어 60% 증가...부리 필렛은 10% 감소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0월의 수산물 수출(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밀)은 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4만 3,600톤, 금액은 7% 감소한 180억 1,400만 엔이었다.

수량은 월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처음 두 자리 성장률이 되었지만 금액은 1월부터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주력 품목으로는 냉동 고등어와 가다랑어 등이 늘어난 반면 냉 가리비, 부리 필렛은 수량 금액 모두 전년 동월을 밀돌았다.

냉 고등어는 2.7배인 7,720톤, 2.3배인 8억 8,600만 엔으로 수량과 금액 모두 크게 신장되었다. 베트남 수출은 41% 증가한 1,921톤, 24% 증가한 2억 4,800만 엔, 태국 수출은 2.1배인 1,735톤, 98% 증가한 1억 8,900만 엔이었다.

냉 가다랑어는 통조림 원료가 되는 태국 수출은 58% 증가한 2,765톤, 77% 증가한 3억 7,400만 엔이었다. 냉 날개가다랑어는 태국 수출이 27.2배인 1,076톤, 22.5배인 3억 1,700만 엔으로 크게 늘어

난 반면, 베트남 수출은 14% 감소한 448톤, 36% 감소한 1억 6,100만 엔이었다.

냉 가리비는 주력인 중국 수출이 12% 감소한 5,857톤, 34% 감소한 16억 9,000만 엔이었다. 대만 수출은 13% 증가한 194톤, 1% 증가한 4억 4,900만 엔이었다. 미국 수출은 72% 감소한 61톤, 73% 감소한 1억 4,000만 엔으로 떨어졌다.

부리 필렛은 주력인 냉동이 9월 수량, 금액 모두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10월에는 다시 전년 동월을 밀돌았다. 실적은 13% 감소한 667톤, 18% 감소한 11억 2,700만 엔이었다. 이 중 대미 수출은 24% 감소한 508톤, 28% 감소한 8억 6,400만 엔이었다. 신선은 31% 감소한 82톤, 31% 감소한 1억 4,700만 엔에 그쳤다.

춥 가을 연어는 33% 감소한 1,024톤, 32% 감소한 3억 4,600만 엔. 명태는 2.2배인 2,071톤, 45% 증가한 1억 7,600만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30일자

상호 입어 쿼터 합의, 전년과 동일한 수량인 9만톤 日·러 지선어업 협상 타결

일본 수산청은 12월 10일 日·러 지선어업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2021년 양국의 상대국 200해리 수역에서 어획 쿼터는 전년과 같은 양인 9만톤 씩이다. 일본이 러시아 수역에서 인정받은 입어 쿼터는 쾡치가 7만 927.4톤, 살오징어가 5,814.25톤, 대구가 810톤으로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량이다. 총 척수는 7척 줄어 585척이 되었다. 러시아의 일본 수역에서의 조업도 고등어가 5만 1,500톤, 정어리 2만 3,500톤, 수염대구가 1만 5,000톤으로 모두 전년과 동일한 수

량이다. 총 척수도 전년과 동일한 89척이 되었다.

일본 어선의 러시아 수역에서의 유상 조업은 어획 쿼터·보상금 모두 전년과 같은 1062.2톤, 4112.2만 엔이 되었다.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일·소 지선어업 협정에 근거해 일·러 어업위원회 제 37차 회의를 개최, 2021년의 상호 200해리 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 등의 조업 조건에 대해 협의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4일자



생선 급속 냉동에 위력, 코마 재팬 ‘미스트랄 KCF’ 저온 급속 냉각, 냉장고

경쟁력 있는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기계화는 중요도를 더하고 있다. 장비 및 자재에 의한 효율화를 진행하면 생산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품질의 편차를 억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산 가공을 도와주는 장비 및 자재를 소개한다.

급속 냉동 기계 제조업체인 프레임 재팬(후쿠시마 토시유키 사장)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 최고의 냉동기 메이커 'KOMA'사의 일본 법인이다.

주력기 중 하나인 저온 급속 냉각 냉장고 ‘미스트랄 KCF’는 소형 클래스 최강 능력인 냉각기 및 냉동고에서 수산물 등 식재료의 급속 냉각, 급속 동결에 위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식재료 280kg을 90분 만에 90도에서 3도까지 냉각하고, 동결은 시간당 식재료 100kg을 25도에서 마이너스 7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냉동고의 외부 치수는 폭 1660mm, 깊이 1360

mm, 높이 2400mm다.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 소규모 수산가공장이나 주방 등에 적합하다고 한다. 이 회사는 냉동기, 냉동고를 폭넓게 구비하여 모든 기종에서 냉동실 내의 온도, 냉기 흐름, 습도가 뛰어난 균형을 이뤄 냉동 보관중인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냉동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단열이 뛰어난 패널의 개발은 물론, 어떻게 낭비 없이 에너지를 상품 동결에 전할 것인지를 추구하고 있다.



▼ 프레임 재팬 (주) = 도쿄도 도쿄도 오타구 니시카마타 898 (전화) 03 · 5710 · 2701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11일자

일본 북방 4개섬 조업 조건 올해 수준

러시아와 민간 2021년 어업 협상 타결

2021년 북방 섬 주변 수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 조건을 결정하는 러시아와의 민간 협상이 11월 25일 올해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할당량은 명태, 임연수어가 올해와 같다. 문어는 3톤 감소했다. 일본 측이 지불하는 협력금은 2,130만 엔, 기자재 공여 비용 2,110만 엔도 같은 조건으로 되었다. 협상은 러시아 연방 수산청·러시아 연방 보안국과 11월 24일부터 웹 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측은 홋카이도 수산회, 북방

4개 섬 주변 해역 조업 대책 협의회, 라우스 어협이 참석했다. 옵저버로 일본 수산청, 외무성, 홋카이도가 참여했다. 조업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업 증명 어획량, 조업 척수, 조업 기간순)

▽ 명태 자망어업 = 912톤, 20척, 1월 1일~3월 15일
▽ 임연수어 자망어업 = 1,060톤, 20척, 9월 16일~12월 31일
▽ 문어 空釣漁業(공낙시어업) = 205톤, 8척, 1월 1~31일 및 10월 16일~12월 31일.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7일자



日 10월 수산물 수입, 칠레 은연어 신물 지연 40% 감소

산오징어 페르사 즈가 1마 토 이사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0월의 수산물 수입량(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밀, 해조류)는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18만 8,690톤이었다. 선냉(鮮冷) 연어·송어가 칠레산 은연어의 대폭 감소 영향으로 9% 줄어든 1만 8,992톤으로 2개월 연속 전년을 밑돌았다.

선냉 참치는 냉 눈다랑어가 늘어나 6% 증가한 1만 5,925톤이었다. 오징어는 페루에서 반입이 늘어나 10% 증가한 1만 691톤으로 증가했다. 선냉 새우는 13% 감소한 1만 5,153톤이었다.

수입액은 10% 감소한 1,241억 6000만 엔이었다. 선냉 참치가 10% 감소, 선냉 연어·송어가 20% 감소했다. 선냉 새우가 20% 감소하고, 주요 어종은 일제히 줄었다.

연어·송어 수입량 가운데 냉동은 19% 감소한 1만 524톤, 신선·냉장은 8% 감소한 1,582톤이었다. 냉동 주력인 칠레 은연어는 41% 감소한 4,885톤에 그쳐 신물 반입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액은 58% 감소한 24억 2,500만 엔이고 평균 가격은 kg 당 496 엔으로 전월 대비 31 엔 하락했다. 홍연어는 14% 감소한 3,273톤이었다. 신선·냉장의 주력인 노르웨이 산 아틀란틱 연어는 8% 감소한 1,490톤이었다.

참치 수입량 가운데 냉동 눈다랑어는 51% 증가한 5,714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력인 대만산이 88% 증가, 중국산이 23% 증가로 일제히 웃돌았다. 냉동 황다랑어는 17% 감소한 3,058톤으로 주력인 대만산이 8% 감소했다. 날개다랑어는 14% 감소한

2,838톤, 냉동 가다랑어는 75% 감소한 903톤으로 함께 감소했다.

새우 수입량 중 남방계가 12% 감소한 1만 4,029톤, 조제품이 6% 감소한 5,741톤, 아마에비(단새우)계가 14% 감소한 989톤이었다. 남방계는 인도산이 7% 감소, 베트남산이 10% 감소로 일제히 전년 동월을 밑돌았다. 아르헨티나산도 29% 감소한 1,843톤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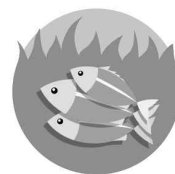
냉동 오징어 가운데 살오징어 계통은 16% 증가한 8,564톤이었다. 중국산이 30% 감소한 3,080톤 한편, 페루산이 3배인 3,470톤을 기록했다.

어묵의 총 수입 수량은 23% 감소한 1만 7,228톤, 금액은 33% 감소한 56억 300만 엔이었다.

B시즌 물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명태는 28% 감소한 9,902톤으로 전월의 45%에 이어 낮은 수준이다. 실꼬리돔은 32% 감소한 1,090톤이었다.

문어는 전년 동월 대비 2.5배인 5,462톤. 냉동 대게는 3% 증가한 1,765톤이었다. 이 중 러시아산은 14% 증가했다. 전갱이는 18% 감소한 1,117톤, 고등어가 29% 증가한 1,150톤, 활 성게는 1% 증가한 1102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30일자





쓰네자와상사 '신형 생선회 슬라이서' 2.5mm까지 얇고 깨끗하게 생선회 가공 처리

수산 가공 기계 전문 제조업체인 쓰네자와상사의 '신형 생선회 슬라이서'는 시메사바(고등어를 크게 두 조각으로 내어 소금과 식초로 간한 것)와 돔, 방어, 참치, 문어, 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에 대처할 수 있다. 기존 모델은 슬라이스 하는 어체의 두께가 3mm까지였지만 2.5 밀리까지 얇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필렛과 사쿠 상태까지 균일한 폭, 각도로 잘라 회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평가가 높다고 한다. 원료를 테이블 부분에 두는 것만으로 균일하게 자른 생선회가 완성된다. 어체의 두께(삭감 폭)와 절단 각도는 어태치먼트(조정 기구)의 교체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고, 껍질이 붙어 있는 재료도 깔끔하게 완성된다. 슬라이스 후 회는 추출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회를 컨베이어에 올려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트레이 등으로 옮길 수 있다. 작업의 신속화 및 생력화로 연결된다고 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으는 것 같다.



최근에는 어류 뿐만 아니라 육류도 깔끔하게 썰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쇠고기나 닭고기 등 이외에 구운 쇠고기 슬라이스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 (주)피시 커터 쓰네자와상사 = 미야기현 케센누마시 岩月長平 15의 2 (전화) 0226 · 27 · 4025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17일자

日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 반입 감소 전망

10월 수입 30% 감소, 1,800톤

양관점 루트에서의 판매가 주류 아르헨티나 붉은 새우(AR 깔깔새우)는 코로나 재난에서도 재고 소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어기 선동선 조업은 시작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 어획량 모두 감소했다.

각 상사들의 선박 냉동 제품 매입 금액은 전년을 밀돌고 있고, 일본 국내 반입량 감소는 확실하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전년 동기에 kg 당 800엔 전후였던 일본 국내 가격은 1,000엔 전후까지 상승했다. 사이즈에 관계없이 비싼 수준이다.

재무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10월 아르헨티나에서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6% 감소한 1,843톤이다. 1~10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의 80% 정도에

그친다. 조업 개시 지연에 따라 신물 반입도 늦어져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는 대폭적인 감산과 주요 소비국의 거래 강제로 신물 시작 시점을 최저가로 해서 계속 상승 기조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 등 유럽의 구매 의욕이 강하다. 유럽에서는 머리 달린 새우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육동품을 머리 달린 그대로 사들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육동품은 머리 떼 제품으로 일본에 스시 원료로 들어온다. 일본에서도 유럽과 같은 움직임이 나오면 머리 떼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스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상사 관계자는 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30일자



중국의 검역 강화 조치, 러시아 업계 대안 찾아야 코로나19 관련 신규 검역 조치에 러시아 업계 우려 커져

러시아 전체 해외 수산물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대 중국 수산물 수출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연해주를 기반으로 하는 Dobroflot Group의 Dobroflot Group 대표는 『중국 정부가 러시아 수산물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신규 검역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냉동/냉장 운반선으로 러시아 수산물을 운송하는 기간이 기존 4~5일에서 현재 3주로 늘어났다』며 『운송비용이 이미 15%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국에 수산물을 하역하는 러시아 선박은 강화된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냉동 어류 제품 포장은 항구에서 소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들로 인해 많은 수의 러시아 선박들이 항구 정박지에 대기하고 있다. 연해주 러시아 수산 기업 협회(AFEP)에 따르면 11월 중순 기준으로 5만 3,000톤 이상의 수산물을 선적한 13척의 러시아 선박이 해당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러시아 어업

회사들은 중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환적지로 한국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러시아 해당 산업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소식통은 『한국 항구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운송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며 대안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최대 쿼터 보유 회사인 Norebo는 중국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어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Norebo사의 Sergey Sennikov 부사장은 『우리는 현재 EU와 국내 시장을 타깃으로 명태 필렛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고 러시아 기업들이 상당량의 명태 H&G를 중국에 공급하기 시작하면 코로나19 검역 관련 엄격한 조치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2월 7일자

대서양 청어 MSC 정지

30일분부터 2019년 어획 권고 30% 초과

해양관리협회의(MSC)는 12월 1일 북유럽에서 어획되는 대서양 청어와 청대구(blue whiting)에 대해 30일 이후에 어획한 분의 MSC 인증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자원의 이용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없다고 심사 기관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북동 대서양 고등어도 2019년에 인증이 정지되었다. 대서양 청어 어업은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로제도 해역에서 이뤄지며 연간 60만~70만톤이 어획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가정식 수요의 증가는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청어처

림 가공 원료로 쓰이는 생선은 거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대서양 청어의 2019년 어획량은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의 권고량을 32% 상회했다. MSC는 『2020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해역의 부어 어획량 쿼터는 연안국인 노르웨이, EU, 페로제도,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러시아 등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다.

고등어의 경우 어획 쿼터를 개별적으로 설정한 결과 어획 실적이 ICES의 권고보다 초과하는 상태가 이어져 2019년 1월에 인증이 정지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4일자



중국 코로나로 냉동 제품 수입 일부 규제

오징어 포장재에서 바이러스 검출, 검사 강화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냉동 수입 식품 전체에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1월 들어 18일에 러시아산 냉동 곱사연어, 15일에 아르헨티나의 냉동 쇠고기·돼지고기, 13일 인도 냉동 오징어 등 주로 외부 포장재 등에서 잇따라 양성 반응이 검출되자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수출했던 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이 1~4주 정지된다.

캐나다와 미국 등 각국은 중국에 검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11월 9일 국무원이 수입 식품 콜드 체인의 소독 철저 조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 식품 검사·방역 체계 강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해관 총서는 11월 18일 외부 포장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곱사연어를 어획한 러시아 어선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 이날부터 1주일 간 수입을 정지했다. 또한 11월 10일과 17일에는 친진 냉동식품 운반 작업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다.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11일까지 전국의 각 세관에서 PCR 검사한 냉동 식품 87만 3,475종 중 13종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해관 총서는 검사 대상이 된 50개국 140개사의 냉동식품 관련 기업 중 문제가 있었던 22개사에 대해 수입을

규제, 수입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11월 11일까지 중국 국내 공장 근로자의 감염이 확인된 식품을 수출한 20개국 99개사에서 수입을 중지하고 있으며 이 중 82개사는 자발적으로 중지했다.

중국은 6월부터 수입 냉동식품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작했다. 캐나다와 호주, 미국 등 각국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검사 중단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지 언론이 『베이징과 칭다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원인은 콜드 체인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고, 또한 전문가의 의견으로 『영하 20도의 환경에서도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수개월은 산다.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일본 국내 반입에 대하여>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일본의 상사로부터 『중국에서의 검사 대기로 화물이 채류되고 세계적으로 컨테이너가 부족해 일본으로의 원료 반입도 중국 경유 등이 늦어지는 등 이미 영향이 나오고 있다. 향후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 원료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3일자

러시아 대통령, 항만국조치협정 법령 서명

하원이 11월 27일, 상원이 2일 심의 승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청은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항만국조치협정(PSMA)’ 비준을 위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하원이 11월 27일, 상원이 2일 심의하고 승인했다. PSMA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09년에 채택되어 2016년 6월에 발

효, 지금까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을 포함한 72개국이 협정에 가입했다.

PSMA는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해 어선이 상륙하는 기항지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통을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4일자



아르헨티나, 외국 어선들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도구

레류브 한자오르 한자 스여에서 어구 제하 드 규제 가는

20년 이상의 분석과 노력 끝에 아르헨티나는 합법적으로 대륙붕을 국제 기준인 200해리(370km)에서 350해리(650km)로 확장했다. 이 대륙붕 확장은 2016년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올해 8월에 아르헨티나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Frida Armas 교수는 『아르헨티나는 이 지역의 광물 자원, 탄화수소, 랩스터, 게, 가리비 등 정주성 종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층(water column) 또는 해수면에 서식하는 수계 생물(Pelagic organisms)에는 이러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년 동안 아르헨티나 어업인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아르헨티나 EEZ 바로 바깥에서 수많은 외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해왔다. 500척이나 되는 중국, 대만, 한국, 스페인 선박이 한 번에 이 지역으로 와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일렉스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다. 외국 선박의 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

하여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남대서양 수산자원보호기구의 Eduardo Pucci 상무이사는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200년 간 갈등을 계속하고 있어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Pucci 상무이사는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연안국 중 하나로 지역 기구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승인된 대륙붕 확장은 EEZ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Trade and Worship) 남대서양 정책 조정관이자 연방수산위원회의 위원인 Josefina Bunge는 대륙붕 확장이 아르헨티나에 현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Bunge는 해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트롤 그물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 기사 출처: Hakai magazine, 2020년 11월 30일자

유럽 전쟁이 수요 증가에도 공급량 불투명 20% 쿼터 감소, 11월 조업은 저조

건어물 등 가공용 원료가 되는 유럽산 전쟁이의 이번 어기 조업이 10월에 시작되었지만 일본 국내 건어물 수요 확대에 비해 공급량은 불확실성이 강하다. 주력인 네덜란드 선동품의 영국 해협(채널) 어장은 10월 어획량이 전년 동월 대비 약 7% 증가한 약 6,400톤, 그 중 일본용은 10배인 약 1,600톤이며 풍어로 어기를 시작했지만 11월 어획량은 저조했다. 또한 네덜란드 선동품의 아일랜드 서부 물은 10월 어획량이 1톤에 그쳤다. 신물의 일본 국내 반입은 12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코로나 재난으로 건어물 버블에 따라 일본 국내에 프리(자유로

운) 재고가 거의 없는 미증유의 사태다. 일본 국내의 밑바닥 수요에 맞는 양을 현재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수입 대상 상품에 PCR 검사를 실시하는 영향으로 반입 지연 및 물류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유럽산 전쟁이 신물 상사 출시 일본 국내 내판 가격은 20kg 당 110~120 마리가 kg 당 310 엔, 20kg 당 130~140 마리가 280 엔 전후로 전기 대비 1%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해협이 약 1만 4,000톤, 서아일랜드가 약 7만톤으로 총 쿼터는 전분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7일자



중국 양식 2029년에 국내 수산물 생산 80% 차지

중국 어업협회 추산, 2020년에는 5,095만톤으로 보합세

중국 수산유통가공협회의 崔和 회장은 가정의 수산물 소비 확대에 고차 가공 및 인터넷 판매 강화를 제안했다. 중국의 2020년 추계 양식 생산량(해면, 내수면 합계)은 2019년 대비 0.3% 증가한 5,095만톤, 어업 생산량은 17% 증가한 1,385만톤으로 중국 어업 협회가 추산치를 발표했다.

양식 생산은 향후 연평균 1.3% 성장을 계속, 2025년에 5,518만톤, 2029년에 5,596만톤으로 국내 수산물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의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6,687만톤, 향후 연평균 0.9% 증가로 확대되고 2029년에 7,232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1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최대의 수산 서밋(회담) '중국 수산 고봉논단(高峰論壇)'에서 중국 어업협회 상무 부비서장이 이같이 밝혔다.

2020년의 수산물 수입량은 5% 감소한 595만톤, 수출은 10% 감소한 388만톤으로 추정했다. 수입량은 2025년 717만톤, 2029년에 751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량은 2025년 467만톤, 2029년 490만톤으로 수입 감소 및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은 연 2~3%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가정 소비 확대 급선무>

중국에서는 수산물 소비의 대부분을 외식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병으로 외식 침체가 국내 수산물 수요의 감퇴로 직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가정에서의 수산물 소비 확대가 의제로 올랐다.

중국 수산 유통가공협회의 崔和 회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어 형태의 생선을 잘 손질하지 못한다. 수산 기업이 고차 가공하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터넷 판매로 각 가정에 판매하는 수요 확대와 유통망 구축이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1~6월 외식 30% 매출 감소>

‘코로나 재난 소매업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던 北京首航国力商贸有限公司의 李軍強 신선 사업부 총경리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국내의 외식 매출은 4조 6,721억 위안(약 72조 9,000억 엔),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1조 4,609억 위안(약 22조 8,000억 엔)으로 크게 감소했다. 단, 10월 1~6일 국경절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해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

<일본 요리가 인기>

중국에서도 일본 요리점은 2019년 말 현재 국내에 7만 6,000개 점포 이상이 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2배씩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식 일본 요리로 현지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널리 침투하고 있다. 평판이 매우 좋고, 격식이 있는 점이 인기의 이유다. 일식은 수산물과 궁합이 좋은 때문에 산업계로도 향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수산 고봉논단은 11월 10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 박람회 센터에서 열렸으며, 온라인에서도 동시 개최했다. 이 회담은 세계 양식 연맹(GAA)의 연례 회의 GOAL과 미국 NAPA의 세계 2대 수산 정상 회담 다음으로 자리 매김하여 매년 중국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주최는 GAA와 NAPA 해양재단, 현지 기업인 廣東恒興集團、青島漁泰輸出入有限公司 등 5곳이다. 알래스카 해산물 마케팅 협회가 후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23일자



소비자 의도와 구매 행동에 큰 격차 MSC 설문조사 결과

MSC와 GlobeScan은 2년 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의 수산물 및 해양과 관련된 지속가능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두 번째 설문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전 세계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해양 환경의 건강성과 어류 개체군 감소를 6번째 중요 이슈로 꼽았다. 응답자의 53%가 기후 변화를 강조해 1위를 차지했다. 북미에서는 해양 환경의 건강성이 3위로 유럽과 아시아와 다르게 대기 오염, 극심한 기상 현상과 같은 문제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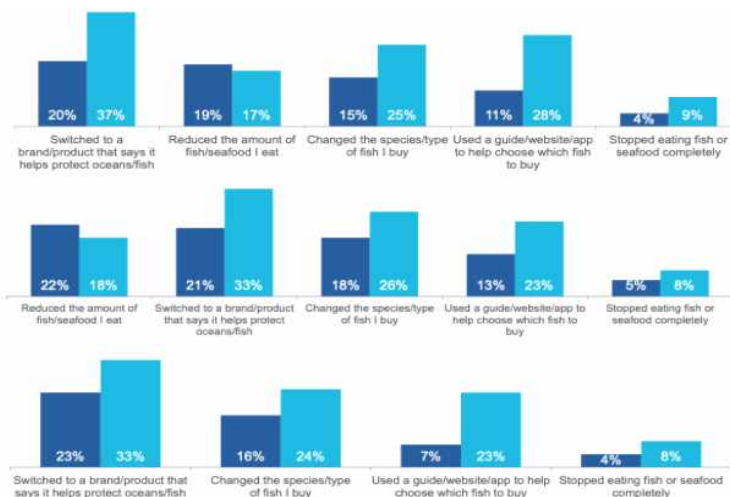
북미 58%, 아시아 61%, 유럽 66%의 응답자는 해양 환경을 구하려면 지속가능한 공급원에서 생산된 어류만 섭취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미래에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소비자의 37%는 해양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브랜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20%만이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격차는 소비자가 어류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웹사이트, 앱과 같은 안내 도구를 사용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더 잘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23%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실제 활용하는 사람은 7%에 불과했다.

수산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상위 4가지(안전, 신선, 건강, 맛)는 동일하게 나왔지만 우선순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아시아 및 북미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은 섭취하는데 안전한 식품인지이며 유럽은 신선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북미와 아시아에서는 가격이 5위, 지속가능한지, 친환경적인지가 6위로 나타났다. 유럽은 이와 달리 5위가 지속가능한지, 친환경적인지로 나타났고 가격이 6위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1월 18일자



세계 공헌도 평가 8위에 미쯔비시 상사 SDGs에 대한 수산 대기업 공헌도 WBA 평가

세계 금융 기관들이 가입한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의 헬렌 패커씨는 11월 11일 온라인 이벤트 「도쿄 지속 가능한 해산물 심포지엄 2020」(주최·시푸드 레거시 등)에서 세계 유수의 수산 기업 30개사에 대해 자신의 지표로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달성 기여도 측정 결과를 소개했다.

WBA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산 회사 유력 30개사를 선정, SDGs 기여도를 평가 한 것이다. 일본 기업은 8위의 미쯔비시를 필두로 日本水産, 마루베니, 마르하니치로, 極洋, 요코하마 냉동 등 6 개사가 선정됐다. WBA는 미쯔비시와 일본 수산, 마루하니 치료 등 일본 기업에 대한 점수 상상을 위해 정보 공개 충실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식품 기업 대출 등을 제공하는 라보뱅크(네덜란드)의 마틴 비아만즈씨는 금융 업계에서 최근 몇 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평가에는 WBA 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WBA는 수산 기업의 기여도를 5개 분야로 평가했다. 패커씨에 따르면 선정된 일본의 6개사 평균 점수는 '인권과 노동 환경' 분야에서 전체 평균을 웃돌

았다. 한편, '지속 가능성 전략' 등 나머지 4개 분야는 평균 수준 또는 평균 이하였다. 패커씨는 '지속 가능성 전략'의 개선 여지로 자회사 및 공급망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사업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열거했다. '트레이서 및 조달' 분야에서 제품의 원산지 공개를 늘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야에서 양식·어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책을 종합적으로 공시하고 측정한다 등을 제시했다.

<10년 만에 규모 51배, ESG 관리 중요>

비아만즈씨는 『2009년부터 2019년에 걸쳐 대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출 등을 실시하는 지속 가능 금융의 규모가 51배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미래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지배구조>)를 더 정성껏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로베코(네덜란드)의 피터 반 데르 워프 씨도 강연. 노동 환경 등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과제를 안고 있는 수산 기업과 대화해 문제 개선을 이끈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世界で最も影響力を持つ有力水産会社30社のSDGs貢献度ランキング

1	Thai Union Group	2.70 / 5	16	Bumble Bee Foods	1.27 / 5
2	Mowi	2.42 / 5	17	Nippon Suisan Kaisha (Nissui)	1.19 / 5
3	Charoen Pokphand Foods	2.32 / 5	-	Tri Marine Group	1.19 / 5
4	BioMar Group	2.22 / 5	19	Dongwon Group	1.17 / 5
5	Nueva Pescanova	2.04 / 5	20	Marubeni Corporation	0.87 / 5
6	Cargill Aqua Nutrition	1.87 / 5	21	High Liner Foods	0.84 / 5
7	Nutreco (Skretting)	1.86 / 5	22	Maruha Nichiro	0.83 / 5
8	Mitsubishi Corporation	1.79 / 5	23	Kyokuyo	0.76 / 5
9	Parlevliet & Van der Plas	1.72 / 5	24	Pacific Seafood Group	0.49 / 5
10	Austevoll Seafood ASA	1.70 / 5	25	Cooke	0.41 / 5
11	FCF Co., LTD.	1.53 / 5	26	Wales Group (Sea Value & Sea Wealth)	0.34 / 5
12	Nomad Foods	1.51 / 5	27	Red Chamber Group	0.23 / 5
13	SailMar	1.50 / 5	-	Trident Seafoods	0.23 / 5
14	Labeyrie Fine Foods	1.36 / 5	29	Yokohama Reito (Yokorei)	0.12 / 5
15	Royal Greenland	1.33 / 5	30	Shanghai Fisheries Group Co., LTD.	0.06 / 5

注:WBA資料から作成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1월 18일자



겨울바다

황 동 규

薄明의 구름장들이 빙빙 돌아간다
 고통처럼 단순한 몇 포기 섬들이
 갯벌에는 여인 서넛이
 소주처럼 쓴 물결을 휘젓는 바람소리가
 아 바람이, 하늘에선 박명의 구름장들이 빙빙 돌아간다.
 웅크리고 박혀 있는 몇 포기 섬들
 갯벌에는 여인 서넛이
 허리 구부릴 때 그네들에게 잡혀주는 몇 마리 게새끼가
 매어 달리는 이 풍경.
 아 바람이
 짧은 해안선을 미친 듯이 달리는
 두 손바닥의 땀방울이.





원양어선 중대위반 시 최대 수산물 가액 8배까지 과징금 부과

의안사어바저버 시해려 이브 게저려아 구르히이 토귀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다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둘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원양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셋째,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며 이를 위반 횟수별로 세분화했다.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한 자 등에 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고시도 함께 마련되며 이들 모두 법령과 함께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미, 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 나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1월 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국제어업관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정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2019년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이후, 이를 4개월 만에 조기 해제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 창구 마련이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어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정례협의회에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우동

식 국제협력정책관과 미국측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Chris Oliver) 부청장, 해양 경비대 제이슨 브레넬(Jason Brenell) 대령 등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과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양국의 법과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이번 정례협의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양국이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시행

1월 1일부터 시행, 휴식시간 보장은 3개월간 유예 기간 부여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하여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 임금, 휴식시간, 근로계약 등 근로 환경 개선 ▲ 식수,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 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선사에서 승선 전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송출비용 부담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담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합의된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근해 어선과 같이 민간 송출·송입업체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선원 송출·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임금수준은 경영상 비밀정보로 정

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은 수당/상여금을 포함(초과 근무수당은 모두 미지급) 약 \$600~700 수준(경력직을 포함한 업계 전체 평균)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 현지어, 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외의 계약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참치연승의 경우 중간 수요조사(10개월)를 통해 하선 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10개월 차에 중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12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 희망자를 교대함으로써 장기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도록 했다.

조수기, 정수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내에 비상용 생수를 항상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운반선을 통해 생수를 지속 공급하도록 했다. 선사에서 생수 지급 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완공

신 수산물 유통망 구축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가 준공되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수산물이 신속하게 배송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전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취합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하기 위해 권역별로 구축하는 시설로, 인천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호남권의 나주는 조성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구조(6단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산지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 소비처 → 소비자’로 이어지는 신 수산물 유통망 구축(4단계)을 추진해 왔다.

이 유통망은 산지에서 갓 잡은 수산물을 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이를 소비지 근처의 분산물류센터(FDC)에서 집적·분산하여 소비자까지 저온 유통으로 신선하게 배송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최적의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10개소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인데,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는 현재까지 전국에 6개소가 완공되었으며,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이번에 인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는 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완도, 경북 경주, 경남 고성, 전남 장흥 등이다.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약 8천 톤 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규모(지상 5층, 연면적 16,782㎡)로, 신선식품 보관장, 입,출고 하역장, 냉동창고 등 신선, 저온 유통을 위한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최근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변화하는 소비추세에 발맞춰 수산물의 당일 신선 배송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철저한 저온 위생관리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수취가격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전년 대비 33,540원 인상된 월 2,249,50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5,960원에서 3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2,480원보다 42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

국회 심의를 통해 188억원 증액,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1,440억원 보다 188억원 증액된 6조 1,628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5조 6,029억원보다 10.0%(5,599억원) 증액된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736억원(2020년 대비 10.4%↑),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99억원(11.2%↑),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5억원(10.0%↑)이 편성되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20년 예산(6,906억원) 대비 13.3% 증가한 7,825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역 중 수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 설비 설치 지원비 1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1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7.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도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국립해양박물관 신임 관장에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임명 국립해양박물관의 위상강화 및 해양문화 확산에 역할 기대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자로 국립해양박물관 제3대 관장에 김태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태만 신임 관장은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 대학원 중국현대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학장 및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립해양박물관 비상임 이사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해양르네상스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 해양문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바 있다.

특히, 해양문화와 해양관광, 지역발전 등과 관련하여 20여 회 연구과제를 수행해 30여 편의 논문 발표했고, 4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해양박물관장에 적합한 전문성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태만 신임 관장은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의 위상을 강화해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총괄
		강성현 차장	총무, 회계
		박설진 과장	경리, 예산
		공길웅 과장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문서, 운전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총괄
소기동 차장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총괄	
	김영수 과장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총괄
		진호정 차장	선망
		최봉준 대리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연승·오징어
	해외협력 2부	이형균 부장	총괄
		조성주 과장	북양, 콩치
부산지부	-	최동환 주임	기타트물
		이형균 부장(겸직)	총괄
	김현애 과장	(051)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對 중국 업무 對 일본 업무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이지현 전문관	044-868-7832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길 팀장	044-868-7364	국제협상 총괄 일반/지역수산기구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통계, 협의회
	김지은 전문관	044-868-7363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i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8호

발행 : 2020년 12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